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bostonkoreanrealestate.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 매사추세츠 최초 한인 판사 임명

### 인권 변호사 및 형사 소송 변호사로 활약 주지사 위원회 수개월 내 임명 동의 표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46분을 손에 쥔 엄마와 4살 되던 해 이민 온 보스톤의 인권 변호사 전명진 씨(43)가 한인으로서 사상 최초로 매사추세츠 판사로 지명됐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지난 12일 전명진 변호사를 보스톤 지방법원(Boston Municipal Court) 판사로 임명했다. 전명진 판사 지명자는 주지사위원회(Governor's Council)의 임명동의 표결을 통과하면 사상 첫 매사추세츠 한인 판사로서 법정에서 서게 된다.

주지사 위원회는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판사로서 공식임명된다. 주지사 위원회는 오는 24일 수요일 일반 공개 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투표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스톤에서 2007년부터 전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형사소송 및 인권 변호를 하고 있는 전명진 판사 지명자는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하워드 프리드만 법률회사에서 인권변호사로서 일했다.



사상 최초로 매사추세츠 판사로 지명된 전명진 변호사

전명진 판사는 올해 형사소송 분야에서 매사추세츠 슈퍼 로이어(Super Lawyers)에 선출됐으며 미 법률변호협회(American Society of Legal Advocates)의 2014년 형사소송분야 100대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3년도에는 미국소송변호사협회(The National Trial Lawyers Association)가 선정한 40대 이하의 최고 40 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다.

전명진 판사는 보스톤 교외 알링톤에서 부인 김수연씨와 슬하에 전진수(Marshall Joun, 14), 전기수(Stuart Joun, 9)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전명진 판사는 아메리칸드림의 한 상징이 되었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삶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한국에서 태어난 4살 되던해 어머니 방금순 씨, 두 동생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다. 전가산을 처분했으나 비행기 값을 제하고 남은 46불로 뉴욕의 브루클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의류공장에서 바느질공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뉴욕공립학교가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일부 교과목에 대해 특수반을 운영하는 마그넷 프로그램(magnet program)을 시작하면서 브루클린 소재 프랭클린 레인 하이스쿨에서 법률을 공부한 것이 장래를 결정짓게 됐다.

90년 보스톤대학(BU)에 입학했으나 학자금 없이 자퇴했다. 군대에 지원해 군 장학금으로 매사추세츠 주

▶▶2면으로 계속



### “군사 협력에서 사회 문화적인 협력 관계 디딤돌로” 총영사 부임 후 첫 참전용사 오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주 보스톤 총영사관(총영사 엄성준)은 지난 16일 6.25 한국전 참전용사 오찬 행사를 열어 참전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 우호를 돈독히 하는 자리를 가졌다. 프랭밍햄(Framingham) 소재 웨라톤 호텔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 참가한 참전용사들은 보스톤 총영사관의 오찬 초대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전 당시 최전방 보병대 상병

이었던 제임스 파워(James Power, 85)는 “1950년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21살이었던 그때의 회상에 잠겼다. “1996년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엄청난 대우를 받았다. 한인사회가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뉴잉글랜드 지역의 참전용사와 가족들, 한인 단체장,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및 버클리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1불의 행복!  
대박이벤트!!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www.japantravelinfo.com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합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금주의 매물**

- 52 River St, Newton, 3 beds, 1.5 baths, 2 cars garage, \$2,900
- 701 Hammond St #1 Brookline, 3 beds, 1 bath, 1 parking, gas and electric 포함, \$2,800
- 116 Burkhal St #0 Weymouth, 2 beds, 1 bath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합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 “인간승리의 위대한 변호사”

▶▶1면에 이어서

특수반을 운영하는 마그넷 프로그램(magnet program)을 시작하면서 브루클린 소재 프랭클린 레인 하이스쿨에서 법률을 공부한 것이 장래를 결정 짓게 됐다.

90년 보스턴대학(BU)에 입학했으나 학자금이 없어 자퇴했다. 군대에 지원해 군 장학금으로 매사추세츠 주립대(UMass)에서 정치와 철학을 전공했다. 한 체인스토어에서 뉴잉글랜드 지역 매니저로서 일하면서 서쪽 법대 야간 대학원을 99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됐다.

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공유했던 스티븐 김 변호사는 “정말 개인적으로 인간승리의 삶을 살았고 변호사로서도 위대한 변호사” 라고 평가했다. 전 지명자는 자주 울스톤 지역 한인식당에서 스티븐 김 변호사와 점심식사를 했었다. 전 지명자는 주지사위원회의 공식 지명 승인을 받을 때까지 언론과의 인터뷰가 허락되지 않아 인터뷰를 미뤘다.

editor@bostonkorea.com

## “한국전은 잊혀져 가지만 참전용사의 공로는 기억해야”

▶▶1면에 이어서

의 참전용사와 가족들, 한인 단체장,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및 버클리 음대의 공연단을 포함한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히 보스턴 시장 마틴 월시를 대신해 한인 3세 다니엘 고(Daniel Koh) 수석보좌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선 국민의례 시 여든이 훌쩍 넘은 참전 용사들은 애국가 가 끝날 때까지 푹푹하고 정정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하며 오랜 세월 동안 녹슬지 않은 군인정신을 보였다.

이어 엄성준 총영사는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매사추세츠 주 상이 용사 회장 리오 애그뉴(Leo Agnew)는 “한국전쟁은 비록 잊혀지고 있지만 우리를 잊지 않고 매년 이런 행사를 베풀어 줘 감사하다” 는 답사를 전했다.

다니엘 고(Daniel Koh) 수석보좌관은 “참전용사를 위한 다양한 복지 및 서비스를 위해 주 정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정부 측 입장을 전했다.

부임 후 첫 참전용사 오찬 행사를 진행한 엄성준 총영사는 정부의 군사협력력이 아닌 민간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이끈 행사의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군사적 협력이 중요했던 과거와는 달



엄성준 총영사가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리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한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우리 문화와 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학술·인적 교류가 필요하다” 며 새로운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학생들의 아름다운 현악 3중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버클리 음대생들의 재즈 편곡된 ‘아리랑’ 과 ‘새야’ 를 감상하며 꾸밈한 오찬으로 행사를 마쳤다.

한국전쟁 당시 미 제4병기대대 카투스사(Katusa) 책임자로 근무했던 참전용사회 이사 강경신(88)은 오래 전부터 참전용사 모임이나 행사에 꾸준히 참석해왔다. “이제 다들 나이가 들면서 참석할 수 없는 참전용사가 많다” 며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남아있는 사람들도 힘을 모아 참전용사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고 전했다.

dyoo9146@bostonkorea.com



오찬 후 엄성준 총영사와 한국전 참전용사들 및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프래밍햄 소재 웨라튼 호텔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 초청받은 참전용사와 가족들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 Threading Threading
- 디지털 펴 & 셋팅 펴 Digital Perm & Setting Perm
- 아이롱 펴 Iron Perm
-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 헤어 메니큐어(코팅) Hair Manicure
-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 왁싱 Waxing
- 얼굴 마사지 Facials
-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 문태국 헝가리 첼로 콩쿠르 우승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재학 한인 최초로 우승 쾌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NEC)에서 첼로를 공부하는 문태국(20) 학생이 헝가리 첼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4일에서 1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파블로 카살스 국제 첼로 콩쿠르(Pablo Casals International Cello Competition)에서 슈만 첼로 협주곡을 연주한 문태국은 1위를 차지해 상금 8000유로(1만 달러)를 받았다.

4살에 첼로를 시작한 문태국은 2007년 줄리아드 음대(The Juilliard School)에 예비학교 학생으로 입학해 2012년에 모든 과정을 마친 후 현재는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로랜스 레서(Laurence Lesser) 교수의 지도 아래 첼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첼리스트 문태국은 퀸즈 심포니 오케스트라 영솔리스트 콩쿠르 1위, 줄리아드 예비학교 첼로 부문 콘체르토 콩쿠르 1위, 독일 올덴버그 국제 청소년 경연 1위 등의 화려한 수상 경력의 보유자다.

그가 한인 최초로 1위를 거머쥔 이 콩쿠르는 스페인 출신의 첼로 거장 파블로 카살스(Pablo Casals)를 기리기

위해 1952년에 창설된 대회다. 이 대회에서 입상한 한국인으로는 1985년 조영창(2위)와 2000년 이정란(최고유망연주자상) 등이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파블로 카살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우승한 NEC 문태국 학생(20)

#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브라운대 콘서트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 집부 =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서울교대 교수)의 평화통일 피아노 콘서트가 지난 16일 로드 아일랜드 소재 브라운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400여명이 운집한 이날 콘서트는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피아니스트 김철웅의 쇼팽 연주곡 감상과 북한 체제 아래에서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에서 처음 음악을 교육받은 피아니스트 김철웅은 정통 클래식과 현대 음악이 집권층의 전유물로 남는 반면 인민에게 전달되는 음악은 북한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한 음악편임을 깨닫고 괴리감과 의문을 갖게 되었다.

러시아 유학 당시 그가 연주했던 '가을의 속삭임' 이 보위부에 밀고되어 심문과 위협을 받고 마침내 탈북을 감행했다.

피아니스트 김철웅은 중국의 한 교회를 통해 신앙과 음악의 자유를 알게 된 후 문화예술의 전도사로서 현재 북의 음악과 실상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김철웅은 "피폐한 생활과 가난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종교, 문화, 예술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탈북하는 사람이 더 많다" 며 "남한 사회가 이를 인지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더 효율적이고 세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대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 SAT Plus Fall Schedule

Starting September 6, 2014

Class	Time
PSAT / SAT I Prep (Grade 11)	9:00 AM – 11:00 AM Saturday
PSAT / SAT I Prep (Grade 10)	11:30 AM – 1:00 PM Saturday
READING / MATH (Grade 9)	1:30 PM – 3:00 PM Saturday
SAT I Prep (Grade 12)	4:00 PM – 6:00 PM Saturday
<b>Individual Tutoring</b>	<b>3:00 PM – 10:00 PM Sunday – Thursday</b>



#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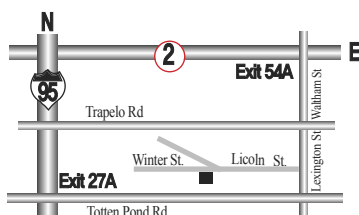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 “마음의 문을 닫으니 이민생활 외롭다”

## 법륜스님 유럽강연 뜨거운 호응, 24일 보스톤 강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현대인은 ‘군중 속의 고독’이란 표현을 한다. 많은 사람과 몸을 부딪히고 사는데 고독하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산 속에 혼자 살아도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자연과 소통할 수 있기에 외롭지 않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다.”

지난 10일 법륜스님의 노르웨이 오슬로 강연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면

서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는 질문에 주어진 법륜스님의 답변이다.

8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세계 115개의 도시에서 총 115일에 걸쳐 열리는 법륜스님의 릴레이 강연은 강연장 좌석이 매번 부족할 만큼 유럽 교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법륜스님은 유럽 마지막 순서인 더블린 강연을 마치고 다음 날 24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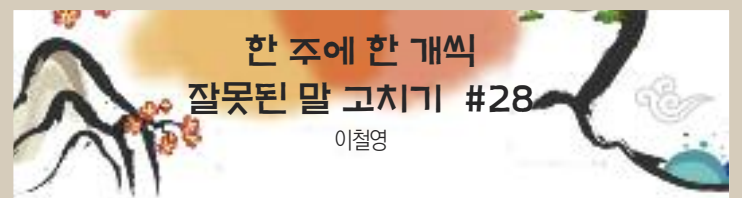
요일 저녁 7시에 하버드 대학 사이언스 센터(Science Center)에서 ‘희망 세상만들기’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선착순 무료 입장이며 강연 중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행사 당일 로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강연 전에 법륜스님 복사인화가 있을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지난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 릴레이 강연



### 고참(X) -> 선임(자) (O), 선참(자) (O) 신참(X) -> 새내기 (O)

'고참(古參)'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우리식 표현에서는 '선임(先任)'이라고 합니다.

선임, 선임자, 선참, 선참자 (<국립국어원에서도 이미 이 말들을 쓰도록 다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참'도 일본식 표현에서 온 말이라 '새내기'로 다듬었구요.

이런 잘못된 언어습관의 사회적 시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재외국민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영주권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등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할 경우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의 주민등록법은 해외이주

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외 영주권 소유자의 경우 한국 국적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이 말소됐다. 이에 따른 활동 제약의 불편함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법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5년 1월부터 재외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내국인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모양은 같으나 국외이주 재외국민임이 표기되어 발급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A 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 돌아온 애플피킹의 계절, 농장으로 떠나는 가을나들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날씨가 꽤 선선해지면서 보스톤에도 가을이 본격적으로 찾아온 듯하다. 애플피킹(Apple Picking)의 계절 또한 성큼 다가왔는데 일부 농장에서는 이미 8월 말부터 애플피킹을 시작했다. 한창 무르익은 사과를 맛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놓치지 않고 가족과 아이들, 연인과 함께 신나는 추억을 만들어 볼 것. 방문하기 전 개장시간과 예약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토가스 가족 농장(Tougas Family Farm, Northboro)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한다. 9월에는 매킨토시, 갈라, 허니크리쉬, 허니골드 등 20여종의 사과를 딸 수 있으며 매달 수확하는 사과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사과나무도 있으며 애플피킹 외에도 페이스 페인팅,

경운기 열차, 농장 동물 만나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호박 피킹은 10월 말까지 계속된다. 애완동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234 Ball Street, Northboro, MA 01532

<http://www.tougasfarm.com/>  
508-393-6406

## ▶허니팟 힐 오차드(Honey Pot Hill Orchards, Stow)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는 이 농장에서는 매킨토시, 갈라, 코트랜드, 골든 수프림 등 30여종의 사과를 딸 수 있다. 약 50개의 사과가 들어가는 큰 봉지는 \$25이며 약 30개가 들어가는 작은 봉지는 \$16이다. 동물 농장이 구비되어 있고 1.5마일의 미로 정원 (16세 이상 \$11.95/ 15세 이하 \$7.95/ 3세 이하 무료)이 있어 아이들

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하다. 138 Sudbury Road, Stow, MA 01775  
<http://www.honeypothill.com/>  
978-562-5666

## ▶벨킨 룩아웃 농장(Belkin Look Out Farm, South Natick)

1651년에 시작한 농장으로 미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농장 중 하나다. 180에이커 규모에 60,000 그루의 과일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농장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한다. 현재 매킨토시와 갈라, 골든 딜리셔스를 딸 수 있고 한국 배와, 자두, 허니크리쉬도 농장에 구비되어 있다. 각종 라이드와 농장체험이 포함되어 있는 입장료는 평일 \$8이며, 주말은 \$14(성인)과 \$12(어린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사과 봉지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무료 입

장이다. 89 Pleasant Street South, South Natick, MA 01760  
<http://www.lookoutfarm.com/>  
508-653-0653

## ▶스몰락 농장 (Smolak Farm, North Andover)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장하는 스몰락 농장은 3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가족 농장이다. 20여 종의 다양한 사과와 호박을 10월 말까지 딸 수 있으며 사과 가격은 바구니 크기에 따라 \$20, \$35, \$40이다. 알파카와 라마 등의 동물을 구경할 수 있고 10피트 이상 자라는 옥수수밭 미로가 새롭게 만들어져 미로게임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제공된다.

315 South Bradford Street, North Andover, MA 01845  
<http://www.smolakfarms.com/>

978-687-40291  
**▶러셀 오차드(Russell Orchards, Ipswich)**

사이다 도넛과 애플파이로 잘 알려진 이 농장은 직접 담긴 와인으로도 유명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하는 애플피킹에는 갈라, 진저골드, 매킨토시, 엠파이어 등 30여종의 다양한 사과가 제공된다. 주말은 바구니로 (한 팩(peck)에 \$20, 현금) 계산하며 평일은 무게를 달아 계산한다. 이곳의 명물인 와인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5시 반까지 시음이 가능하며 (\$5에 4종류) 평일 시음은 따로 예약을 해야 한다.

143 Argilla Road, Ipswich, MA 01938  
<http://www.russellorchards.com/>  
978-356-5366  
dyoo9146@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http://www.drfrankshin.com)

#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새 학기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13일 토요일 뉴튼 소재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가 개학식을 가지며 새 학기의 출발을 알렸다.

개학식은 남일 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어 각 과정의 교사(기초 1-2과정 김희현, 기초 3-4과정 이성희, 초급과정 주민정, 중급과정 김소희, 고급과정 김영순, 세종과정 안은숙) 및 오전, 오

후 특별교육 담당 교사 소개로 이어졌다.

이사회 박신영 총무이사가 윤경숙 이사장을 대신해 환영사를 전했고, 이현주 학부모회장의 환영사와 주민정, 김종현 교사의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 선창에 맞춘 전교생의 선서로 개학식을 마무리했다.

남일 교장은 "예년엔 기초과정의

신입생들의 경우 첫 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 근래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몇 달 이상 배운 학생들 처럼 진지한 모습으로 선생님의 지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본다" 며 대견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학교는 2세들의 뿌리교육을 위해 늘 고민하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 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지난 6일 제 3회 교사연수회와 신입생 입학식을 가지며 공식 학사 일정을 시작했다. 10월 말에는 '개교 40주년 기념 한글동화구연-동시암송대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일부터 연례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입학 및 교사 모집(한글교육 및 문화교육) 문의는 남일 교장(508-523-5389, ksneusa@verizon.net) 혹은 학교 홈페이지(www.koreanschool-ne.org, www.ksneusa.org)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학식에서 남일 교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정기총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10월 4일 토요일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제 24차 정기총회가 뉴튼 소재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에서 오후 6시부터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는 새로운 이사들을 소개하고 협회의 각종 활동 보고와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총회 후에는 임균택 사무차장의 '차세대 리더 심포지움(YSL)' 에 대한 행사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 친교 및 다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한인사회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추진하며 시민권 취득 워크샵, 유권자 등록과 선거참여 드라이브, 다양한 모금 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차세대 리더들의 정계 진출을 위한 정치인턴 후원 사업도 시민협회에서 20여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차세대 리더 심포지움' 은 젊은 리더 양성을 위한 행사로 지난 해에 이어 오는 11월 1일 하버드 법대에서 열

릴 예정이다.

**시민협회 제 24차 정기총회 모임일정**

일시: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45 Ash Street, Auburndale, MA 02466

bostonkorean@hotmail.com

# 주 보스톤 총영사관 여권발급 서비스 개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22일부터 주 보스톤 총영사관은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발급 신청 시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과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를 도입한다.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 은 민원인이 여권사진을 접수처에 가져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사진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사진 이미지를 전자여권 사진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여권 사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여권사진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 장비는 총영사관 내에 있기 때문에 순회영사를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는 기존 종이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영문 성명,

연락처 등 필수사항만 기입한 간이 서식지를 작성하여 전자 서명 패드에 서명해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방식보다 간편한 절차로 복잡한 여권 신청서 작성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타 문의사항은 총영사관(617-641-2830, kcgboston@mofa.go.kr)으로 연락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주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새로 도입하는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기사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bostonkorean@hotmail.com, 617-254-4654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 MIT 김상배 교수 연구팀, 치타 로봇 화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지난 15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김상배 교수 및 기계공학 연구팀이 획기적인 '치타 로봇'을 선보여 화제다.

네 발을 사용해 시속 16km까지 달리며 33cm 높이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로봇은 기존의 로봇과는 달리 역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며 소음이 거의 없는 점에서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

"치타 로봇은 근육보다 뛰어난 모터를 개발해서 그 성능을 보여준 결과"이며 "전기모터를 쓰는 로봇이나 내연기관과 유압을 쓰는 보스톤 다이 나믹스의 로봇보다 효율이 최소 10배 정도 좋아 열이 나지 않고 조용하다"고 김상배 교수는 전했다.

특히 이 로봇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다리를 이용해 달리는 것이 아닌 등뼈를 앞뒤로 움직여 달리는 것과 땅을 딛고 뛰어 오르는 접지능력 등 치타의 역학적 움직임을 알고리즘화해 적

용시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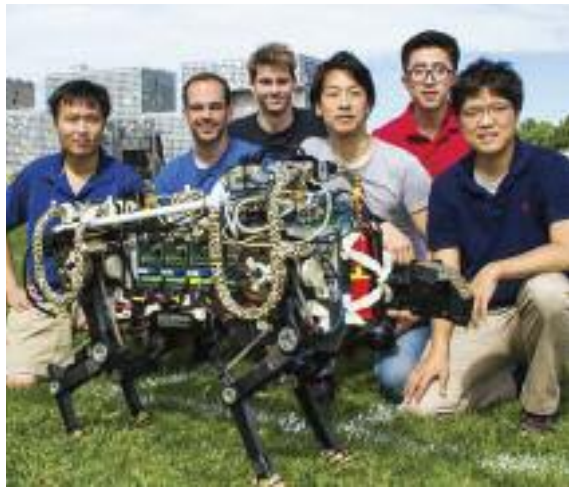
치타 로봇은 재난 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엇보다 새로운 교통수단의 발명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한다. 김상배 교수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동에 한계가 있으며 의족도 마찬가지다. 다리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이 생긴다면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의 행동반경이 굉장히 넓어지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치타 로봇의 연구 가치를 설명했다.

치타 로봇에 대해 김상배 교수는 "현재 발표한 동작들은 연구팀에서 개발한 모터 성능의 40%만을 사용해 이뤄낸 성과로 곧 더 빠른

주행과 회전능력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치타 로봇 팀에는 김상배 교수, 박해원 연구원(Research Scientist), 전기공학 교수 제프리 랭(Jeffrey Lang), 수석연구원 데이빗 오펜(David Otten) 등이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김상배 교수(아래쪽 우측에서 두 번째)와 연구팀이 개발한 치타 로봇

#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홍지순 권사 임원 선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좋은땅한인교회(메드포드 소재) 홍지순 권사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K.C.W.U.) 제 8차 정기총회에서 보스톤 지역 담당 및 총회 총무로 선임되었다.

미국 50개 주 대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정기총회는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여성들

(레11:45)'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무로 선임된 홍지순 권사는 "앞으로 보스톤 지역 많은 교회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매년 3월 첫 금요일에 개최되는 세계기도일에 동참하여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여성기독교인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다.

보스톤 지역은 2012년까지 보스톤한인교회의 김경애 권사가 지역 담당자로 기도모임을 이끌었고 그 해 뉴저지

트렌튼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제 6차 총회에서 좋은땅한인교회 안민선 전도사가 지역담당자로 결정되었다.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는 세계선교를 위해 미주 기독교 한인 여성들이 김할란 박사를 중심으로 1979년에 시작된 기독교 단체다. 주관하는 모임으로는 세계기도일을 정해 매년 3월 첫 금요일 오후 8시에 예배 및 기도회 모임이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 '명량' 흥행성공, '군도'와 '해적' 조기종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한국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명량'이 보스톤에서 크게 흥행한 반면 '군도'와 '해적'은 호평에도 불구하고 조기종영을 맞으며 흥행에 실패했다.

'명량'은 이례적인 흥행에 이끌려 지난 11일 보스톤 상영을 마쳤고 잇따라 개봉한 '군도'와 '해적'이 지난 18일 개봉한지 각각 3주와 1주만에 막을 내렸다. '군도'와 '해적'의 배급사 관계자 폴 신은 "유독 보스톤 지역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두 달 사이에 한국영화가 세 편이나 개봉한 것은 보스톤 뿐 아니라 미주 전역을 통틀어 이례적인 일이지만 두 편이 흥행에 실패해 조기종영을 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스톤코리아에서 진행한 무료 티켓 이벤트도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명량' 때 총 43명이 티켓 이벤트에 참여했다면 '군도'와 '해적'은 각각 37명이 참여해 상대적으로 낮은 호응을 보였다. 강

하게 몰아 닦친 '명량'의 흥행이 '군도'와 '해적'에 몰릴 관객까지 선점해 버린 건 아닌가는 평도 제기된다.

'해적' 티켓을 받고 리비어 상영관에서 처음 영화를 관람한 보스톤의 한 주부는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영화관 시설에 놀랐다. 보스톤 극장에서 한국영화가 상영한다니 자랑스럽다"며 "이후에도 한국영화가 많이 개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스톤에서만 총 2000여명이 관람한 '명량'은 \$2,501,812의 박스 오피스 수익을 내며 북미에서 개봉한 한국영화 중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미주 54개의 상영관 중 보스톤 상영관은 30위로 중간 성적을 냈고 최고의 성적을 거둔 지역은 LA와 뉴욕/뉴저지라고 배급사 측은 전했다.

'명량'은 이번 주말에도 총 14곳의 극장에서 상영이 지속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과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 유아용 도자 식판 '테르휘' 보스톤 입성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유아용 도자 식판 '테르휘(Terre-Hui)'가 보스톤에 입성할 계획이다.

'테르휘'는 세라믹 아티스트 김도훈 작가와 아트 디렉터 송선주 작가의 딸(휘)을 위해 개발한 유아용 도자 디자인 식기로 최근에 가수 지드래곤이 타블로의 딸 하루에게 선물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유아용 도자 식판은 밥뚜정을 하거나 식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아이를 위해 고안된 디자인으로 무게감이 있어 떨어뜨릴 위험도 적다. 무엇보다 도자기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금식사 중 차별함과 조심성을 기르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테르'의 모든 제품 공정은 핸드메이드로 소량 고급화 생산에 맞춰져 있다. 최고급 백자 흙을 사용하여 제작한 후 900도에서 한번 구운 뒤 핸드메이드 채색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1260도에서 구워낸다. 이러한 공정과정을 통해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이 탄생된다.

김도훈 작가는 "보스톤 한인사회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이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고 전했다. '테르휘'는 3개월간의 사전 현장조사와 호응도를 바탕으로 보스톤 입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테르'는 2013년 12월 런칭 이후 현재 '테르휘' 유아용 도자 식기 라

인을 생산 중이다. 유아용 식판은 식욕을 돋구는 색감을 입혀 자동차, 집, 가방 등의 디자인이 출시되었으며 영문이니셜을 새길 수 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주얼리 브랜드인 제이에스티나(J.Estina)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테르송(Terre-Ssong)' 성인 식기 라인과 '테르도(Terre-Do)' 도자 인테리어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제품 디자인과 사용후기는 테르 홈페이지(<http://terre.co.kr/shop/main/index.php>)에 자세히 나와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지드래곤(중)과 지드래곤의 딸 하루에게 선물한 유아용 도자 식판 '테르휘'가 타블로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지드래곤은 2014년 8월 15일 인스타그램에 'GD 오프라인 꼭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지드래곤의 딸 하루에게 선물한 유아용 도자 식판 '테르휘'가 타블로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 폴라 리 저서 '파리에서의 사슴사냥' 로웰 토마스상 수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재미교포 폴라 리(Paula Lee)가 저서 '파리에서의 사슴사냥: 신, 총, 고기에 대한 회상(Deer Hunting in Paris: A Memoir of God, Guns, and Game Meat)'이 미국여행작가협회(The Society of American Travel Writers)에서 로웰 토마스상을 수상했다.

'파리에서의 사슴사냥'은 한국에서 이민을 온 목사의 딸로서 메인 주(Maine) 시골 한 모퉁이 파리(Paris)에서 자란 경험을 솔직하고 유쾌하게 그려낸 여행과 요리에 대한 책이다.



터프츠 대학 연구교수 폴라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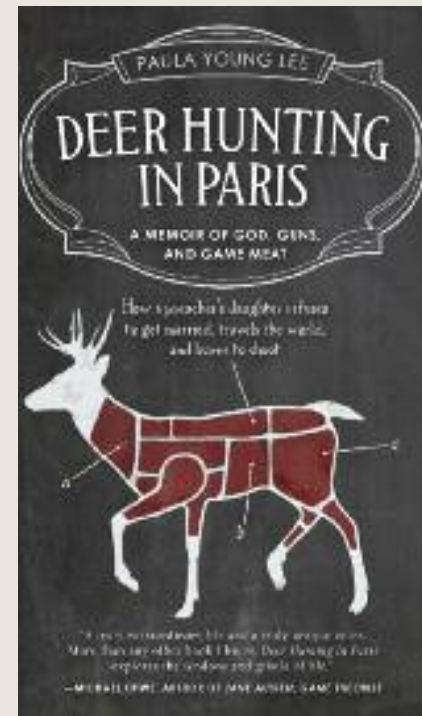
저자는 책을 통해 여자로서 짝이 찾아 할 삶의 복잡성과 이면성을 제시한다. 본인은 박사학위를 따고 학업에 매진하는 '순종적인 삶'을 살기도 했지만 결혼해서 정착하기를 거부하는 '불순종'의 모습도 보이며 "복잡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장기의 소녀들에게 이색적인 롤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폴라 리는 전했다.

지난 16일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발표한 로웰 토마스상은 폴리처상(Pulitzer)에 비등하는 명망 높은 상이다.

작가 폴라 리는 현재 터프츠 대학(Tufts University) 동물·공공정책센터(Center for Animals and Public Policy)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오른쪽 하단에 윈 카지노가 건설된다. 미스틱 강과 함께 멀리 보스턴 도시 실루엣이 보인다

# 윈 카지노 에버릿에 건설된다

카지노 위원회 17일 만장일치로 승인, 2017년 말 완공 예정  
리비어의 모히건 선 대신 에버릿의 윈 카지노 선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카지노 설립의 결정 판이었던 보스톤 인근 카지노는 결국 16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윈리조트 에 버렛으로 결정됐다.

매사추세츠 카지노위원회는 17일 최종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억만장자 카지노 개발업자인 스티브 윈의 에버렛 카지노를 승인했다. 의장 스티븐 크로스비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게일 캐머런, 앤리크 주니가, 브루스 그리고 제임스 맥휴 위원 모두가 찬성했다.

윈 회사 관계자들은 17일 아침 보스톤 카지노위원회에 참석해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16일 카지노위원회는 추가적인 보충사항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3대 1로 승인했다.

윈 리조트는 16일 아침 위원회에 카지노 인근에서 교통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설리번 스퀘어의 교통증정 유발에 대해 최대 2천만불을 지불하겠다

고 밝혔다. 윈 리조트는 보스톤 시와 찰스타운에 4천 6백만불의 교통 부담금을 납부키로 했으나 카지노 위원회가 설리번 스퀘어 쪽의 교통 유발금까지 요구하자 그동안 거부사를 밝혀왔으나 이를 수용해 최종 6천 6백만불을 납부키로 했다.

이번 표결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보스톤 시장 마틴 월시는 모히건 선의 경우 보스톤시에 교통부담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힌 반면 윈 리조트는 이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에버렛 부지 개입시 범죄혐의가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아직도 최종결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11월달에는 카지노 설립 법안의 폐



지를 결의하는 주민투표안 표결에서 살아남아야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11월 주민투표에서 부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위원회는 이미 슬롯 팔러는 펜 내셔널 게이밍 프로젝트에 라이선스를 발급키로 했으며 웨스턴 매사추세츠 카지노 라이선스는 스프링필드의 MGM 카지노에 발급키로 한 상태다.

매사추세츠 동남쪽의 카지노 면허는 오는 2015년에 결정하게 된다. 윈 카지노는 2017년 말 완공 예정이다.

## 에버렛 윈 카지노 경제효과 지대할 듯

버려진 땅, 기회의 땅으로 변신할까  
4천 3백여 평생 일자리, 3천7백 건설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93번 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다 첫 번째 출구인 28번으로 나가 우회전을 하면 만나는 설리번 스퀘어 로터리에서 두 번째 출구인 99번을 타고 미스틱강을 건너면 오른쪽으로는 발전소가 그리고 왼쪽에는 커다란 공터가 있다.

보스톤과 남쪽 경계를 접한 에버렛의 미스틱 강변 황무지, 이곳이 향후 윈 카지노가 들어설 자리다. 37에이커 규모의 황무지인 이곳은 과거 화학약품 공장이 들어서 있던 곳이었다. 부지는 FBT 에버렛 리얼티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윈이 구입했다. 카지노 건설을 위해서는 화학약품을 청소해야 한다.

에버렛 카를로 드마리아 시장은 "윈 카지노는 에버렛의 버려진 땅을 바꿔놓을 것을 것이다. 더 이상 보스톤의 인접한 시로 남아있지 않을 것" 이라고 환호했다. 에버렛의 카지노는 연 카지노 수익이 7억에서 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카지노 선택의 최대 고비는 카지노 커미션이 설리번 스퀘어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일정량 이상일 경우 카지노에 벌금을 물리는 교통 유발 부담금 조항이었다. 윈 카지노가 가능하면 고객들의 대중 교통 이용을 권장케 하고 너무 많은 교

통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윈 리조트 측은 최초 이를 거부했었다.

그러나 윈 리조트는 커미션이 부담시킬 금액보다 훨씬 많은 향후 10년간 2천만달러를 출연해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나서는 통 큰 결정을 내려 카지노 위원회의 긍정적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

에버렛 소재 미스틱 강변에 건설하는 윈 카지노는 150여개의 테이블 게임과 3천 여대의 슬롯 머신 그리고 500개의 호텔 객실을 갖추게 된다. 약 3천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미팅 및 컨벤션 룸을 갖추고 9만 4천피트의 삼점, 8개의 레스토랑, 스카 등이 들어선다.

경제적 효과  
▶4천 382명의 평생 일자리 창출, ▶천 700 건설직 일자리 창출, -2억6천7백만달러의 주 및 지방세수 확보, - 3천만달러 커뮤니티 개선 사업

도로 확충  
▶4천 5백만불 단기 도로 정비 확충, -설리번 스퀘어 개선 자금, -역에서 카지노까지 셔틀 운행, 보트 항구 및 수상 택시 서비스

환경 개선  
▶2-3천만불 화학약품 제거, -해변 산책로 및 인도 및 자전거 도로 확충.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http://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http://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mailto: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mailto: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 테슬라 자동차 MA주에서 딜러 없이 판매 가능

### 최상급 법원 판결로 2년 법정 공방 종지부, 다른 딜러십 피해 없어 위법 아니라고 판결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최상급 법원이 자동차 회사 테슬라(Tesla Motors Inc.)가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들에게 직접 대리점을 통해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럭셔리 전기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는 현재 네이틱 몰 내에 직영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틱 몰에 위치한 테슬라 직영 매장. 테슬라는 딜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5일에 매사추세츠 최상급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로 테슬라와 매사추세츠 자동차 딜러 연합 사이에서 벌어진 2년 간에 걸친 소송전이 테슬라의 승리로 끝났다. 매사추세츠 자동차 딜러 연합은 자동차 제조 회사가 딜러 대리점을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매사추세츠 주법을 테슬라가 어겼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매사추세츠 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딜러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 회사가 딜러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 회사가 자체적으로 딜러 대리점을 운영하여 자사의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판매 가격을 임의로 낮추면 자동차 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다른 딜러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상급 법원은 테슬라가 매사추세츠 주법을 어기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회사가 딜러 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미 그 자동차 회사의 차량을 판매하는 다른 딜러 회사들이 있을 때 적용된다는 것이다. 테슬라의 경우, 테슬라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독립 딜러들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동차를 직접 판매해도 피해를 입는 딜러들이 없다고 최상급 법원은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테슬라의 디아무이드 오코넬 부사장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유지해온 판매 방법을 법원이 인정해줘서 아주 기쁘다” 며 “다른 주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인터넷이나 직영 대리점을 통해서만 자사의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이 딜러

십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기존의 차량 유통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테슬라의 판매 방법은 여러 주에서 기존의 자동차 딜러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소송 결과는 주마다 다르다. 테슬라는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 매사추세츠 주와 비슷한 법정 승리를 거두었고 오하이오 주에서는 딜러 연합과의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자동차 딜러십에 대해 더 엄격한 주법을 적용하고 있는 텍사스, 아리조나, 매릴랜드 주에서는 전통적인 딜러 시스템을 통해서만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존 귀카 경제학 교수는 테슬라에 대한 최상급 법원의 판결이 매사추세츠 주의 기존 자동차



## 보스톤 “너무나쁜 운전자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최근 발표된 온라인 조사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운전자가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무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슈어닷컴(Insure.com)에서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미국에서 운전을 가장 무례하게 하는 주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는 2천여명의 운전자가 참여했고, 불명예스런 1위는 아이다호 주가 차지했다.

워싱턴 디씨가 2위, 뉴욕 주가 3위였으며 와이오밍 주가 4위를 차지했다. 매사추세츠 주와 인접한 로드아일랜드는 14위를, 뉴햄프셔 주는 최하위권인 48위를 기록했다. 이 인터넷 설문조사는 운전을 가장 무례하게 하는 주에 순위를 매겼을 뿐만 아니라 어떤 주에서 어떤

주를 가장 싫어하는지도 파악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운전자들을 제일 싫어하는 운전자들은 뉴햄프셔의 운전자들이었다. 반면에 매사추세츠 주의 운전자들은 로드아일랜드의 운전자들을 가장 싫어했다.

미시간 주에서 마케팅 회사를 경영하며 업무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에 자주 출장을 온다는 한 여성 운전자는 “매사추세츠 주에는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가장 무례한 운전자들이 있다” 며 “운전을 하면서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차 뒤에 바짝 다가선다. 마치 도로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운전하는 사람들을 매사추세츠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딜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요타, 포드, 지엠 등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여전히 직영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사추세츠 주에 아직 딜러가 없는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려고 할 때는 전통적인 딜러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정관장

미주 한인의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 요즘 같은 때 일수록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건강이 걱정되는 요즘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면역력입니다

**정관장 홍삼이면  
믿을 수 있습니다.**

115년 정관장의 원칙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내산 6년근 고려인삼만을 100%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로 사용하며 최고의 설비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받고 만들어집니다. 태생부터 다른 정관장 홍삼은 타 홍삼제품이 모방하지 못하는 품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건강식품 보다  
안전합니다.**

과대광고 제품과 다양한 속설에 주의하세요. 홍삼은 장기섭취가 가능하고 무독한 상약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관장 홍삼은 인삼을 증삼하여 부작용을 줄였으며 체질에 관계없이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1일 권장량을 지켜서 드시면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 올스톤 아파트단지 매매 175 고객 몰려

뜨거운 보스턴 부동산 시장 반영, 올스톤도 고가의 아파트 투자처로 283유닛 아파트 1억 5천만불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턴 부동산 시장이 사상최고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중심가에 벗어난 올스톤의 아파트단지가 사상 최고가 중의 하나로 판매됐다.

한인상가가 밀집된 하버드 예비뉴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그린 디스트릭트 빌딩은 최근 1억 5천만 달러에 뉴튼 소재 개발회사인 내셔널 디벨로브먼트사에 거래됐다.

특히 올스톤 지역은 유입인구가 많고 공실율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형 아파트먼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보스턴 리얼티 어드바이저스의 크리스 소우어 전무는 “현재 시장의 수요가 극히 높은 상태” 라고 밝혔다. 이번 그린 디스트릭트 빌딩에는 팬션 펀드사를 비롯 전국적 부동산 회사 그리고 국제 투자자들까지 약 175 곳 이상의 고객들이 관심을 표명했었다.

이번 거래로 내셔널 디벨로브먼트(National Development)사는 총 8개 빌딩 중 3개 빌딩 283개 유닛의 아파트 단지를 구입했다. 이 빌딩에는 275개의 파킹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판매가는 한 개 아파트 유닛당 52만불에 거래되어 사상 최고액 중의 하나로 평가됐다.

최고가는 지난 2010년 백베이 소재 게리슨 스퀘어의 160 유닛의 아파트 단지로 유닛당 61만 2500불에 판매된 거래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먼트 투자가 주식거래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래로 여기고 있기 때



올스톤에 개발된 아파트 단지. 주식보다 아파트 투자 수익율이 좋다는 것이 알려지자 보스턴 부동산 시장에는 국내외 자본들이 몰려들고 있다

문에 아파트먼트 단지 투자에 대한 인기가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요가 증가하자 최근 들어 보스턴 인근에서는 대형 아파트먼트 건설이 붐을 타고 있다.

부동산회사 트리비스 드아마토 수석부회장은 “보스턴은 미국 내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 중의 하나다.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보스턴의 대형 아파트 개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고 밝혔다.

내셔널 디벨로브먼트 사는 메드포드 소재 스테이션 랜딩 단지를 개발했으며 사우스 엔드 소재 구 보스턴 헤럴드사 부지에는 잉크 블럭 주거 및 상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의 탐 알프센 사장은 그린 디스트릭트 아파트 단지 주변에 편리한 교통은 물론 더 많은 상가, 레스토랑 그리고 유흥시설들이 자리하고 있

어서 더 많은 성장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올스톤은 중요한 부동산 투자장소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마운트 버는 사가 그린 디스트릭트를 개발하면서 중요한 부동산 투자처로 떠올랐다.

현재 그린디스트릭트의 1베드룸 아파트 가격은 월 \$2100 수준이다. 이는 다운타운 보스턴에 비해 훨씬 저렴한 수준이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거의 다운타운은 두 배가 가까운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내셔널 디벨로브먼트는 여러 가지 예측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당장 대폭 인상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다.

hsb@bostonkorea.com

# 지금이 플루백신 접종 적기

오바마 케어로 플루백신 커버 성인들 10월까지 접종 미뤄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플루백신 예방접종의 시기가 돌아왔다. 미 질병 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플루가 11월 중순 발병해 12월에 피크를 이뤘지만 올해는 플루시즌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뉴햄프셔에서는 플루 발병이 시작되었다는 보고가 있는 등 플루가 시작되었다.

CVS가 실시한 플루백신 조사에 따르면 플루백신의 효력은 8, 9월 달에 접종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약 40%가 넘는 성인들은 10월에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루백신은 접종 후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약 2주간의 항체 형성기간이 있으므로 가능

하면 빨리 접종을 받는 게 좋다. 플루 백신은 오바마케어어를 통해 커버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은 백신을 커버한다. 그럼에도 약 46%가 오바마 케어를 통해 백신 비용이 커버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성인의 67%는 플루 증세에도 불구하고 출근하고 있다. 따라서 플루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직장 동료, 대중교통 이용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빠른 시일에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 보스턴에서도 플루 시작

(보스턴=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소셜 미디어를 통해 플루나 알려지, 각종 질병 등이 나타나는 것을 지도로 구현해주는 사이트 식 웨 더 닷 컴(sickweather.com)에 따르면 플루가 보스턴에서 발병하기 시작했으며 열병이 유행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곳을 피하도록 경보를 발하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이를 즉각 알릴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식웨더 닷컴은 각 지역의 발병 상황지도까지 보여준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풍경,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 23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BEDFORD 지역 단독주택

\$619,000, 3 BEDS, 2 BATHS, 2,010 SF, 1.3 Acre Lot Size (3 CEDAR LANE, BEDFORD, MA)

학군 좋은 Bedford 지역 Single House. 넓은 정원, 안쪽에 위치, 조용하고 Private한 곳입니다.

# 연준, 상당기간 초저금리 유지

일단 인상되면 금리 가속 상승 전망...양적완화 100억달러 또 축소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김세진 특파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0~0.25%)으로 운용하는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for a considerable time) 이어가기로 했다.

또 현재 월 250억 달러인 양적완화(QE) 규모를 다음 달부터 1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연준은 16일부터 이틀간 금융•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연준은 이날 회의 직후 낸 성명에서 "여러 요인을 평가할 때 현 추세로라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끝내고서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지난 3월부터 네 차례 FOMC 회의에서 줄곧 써온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다면 조기 기준금리 인상 단행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따라서 연준이 '내년 중반'으로 제시해온 금리 인상 시점을 현 시점이나 현재의 고용•경기 추세에서라면 '내년 상반기' 등으로 서둘러 앞당기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말에 대한 기계적 해석이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용어가 일정의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상당히 조건적이고, 위원회의 경기 판단과 연



계돼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적절 시점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 특정 자료에만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준이 일단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그 속도는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다소 '가속할' 전망이다.

FOMC 위원들이 점치는 향후 예상금리의 중간값을 보면 내년 말 금리는 1.375%로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25%포인트, 또 2016년 말의 금리는 2.875%로 이전 전망보다 0.325%포인트 각각 높았다.

한편, 연준은 월 250억 달러인 채권 매입 액수를 다음 달부터 100억 달러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FOMC 회의에서 월 850억 달러였던 3차 양적완화(QE3) 규모를 100억 달러 줄이는데 tapering(자산매입 축소)에 처음으로 착수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3월, 4월, 6월, 7월 회의에서 채권 매입 액을 매번 100억 달러씩 줄였다.

따라서 이번까지 일곱 차례 회의 연

속으로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한 것이다.

연준은 10월 열리는 FOMC 회의에서 150억 달러를 마저 줄임으로써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할 예정이다.

연준이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려 양적완화 정책을 통한 채권 매입으로 시중에 풀 돈은 그동안 4조 4천 200억 달러에 달한다.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의 최근 경제 활동은 '완만한'(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회복된다'(picked up)거나 '반등한다'(re-bounded)고 표현했던 점을 고려하면 약간 보수적인 경기 진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연준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2.3%에서 2.0~2.2%로 다소 하향조정했다.

연준은 또 성명에서 "노동 시장 상황도 조금 더 개선됐지만, 여러 지표가 노동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물가상승률도 연준의 장기 목표치(2%)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정에는 옐런 의장과 스탠리 피셔 부의장 등 FOMC 위원 8명이 찬성했으나 찰스 플로서 위원 등 2명은 금리 인상 시점을 '상당 기간' 등으로 못박으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표를 던졌다.

다음 FOMC 회의는 10월 28~29일 이틀간 열린다.

# 오바마케어 수혜자들, 11월 중간선거서 안면몰수?

공화당 유권자들 오바마 케어 좋아하지만 대통령은 싫어해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오바마케어는 좋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싫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간판공약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에도,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득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선거의 이슈에서 밀려난데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비로소 병원 치료를 받게된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쉽게 지지 정당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NYT는 공화당이 강세를 보이는 켄터키 주(州) 르포를 통해 이곳에서는 오바마케어 시행 후 보험 비(非)가입률이 20.4%에서 11.9%로 떨어졌지만,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전했다.

오히려 공화당은 루이스빌의 한 선거구만 제외하고는 켄터키주 전 선거구에서 공고한 지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자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앨리슨 런던건 그라임스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NYT는 그러면서 켄터키주가 오바마케어와 투표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축소판'과 같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입으면서

도 이 법을 저지했던 공화당 의원들을 지지하는 이유는 각각도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통해 비로소 보험이 적용되는 고혈압 치료를 받게된 49세의 로빈 에번스는 "떨 듯이 기쁘다"면서도 "공화당 지지자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화당 후보들의 집중포화도 유권자에게 먹혀들고 있다.

오바마케어가 '동네북'처럼 현지에서 두드러 맞고 있다는 것이다.

맥코넬 상원의원은 2013년 1월부터 1만 건의 TV 스팟 광고에 출연했는데 대부분 오바마케어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오바마케어가 현지에서 성과를 거뒀음에도, 민주당의 그라임스 후보는 선거운동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바마케어가 '오바마 정부'의 과욕이자, 민주당의 졸속 정책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로도 넘지 못하는 '반(反) 오바마'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CNN방송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켄터키 주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업무 성취도에 대해 33%만이 긍정 평가한 반면 63%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quintet@yna.co.kr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에모리얼 병원 재활의학 과 수석비서  
위싱턴 디씨 통증병원 원장  
대구대학교 와재 교수  
산정대학교 외과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강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 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 MED ACUPRESSURE

지압치료(Acupressure Therapy)  
햇스톤  
속 눈법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 애플 iOS 8 업데이트 개시 앱스토어 출범 이래 최대 규모

일단 인상되면 금리 가속 상승 전망...양적완화 100억달러 또 축소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애플이 아이폰·아이패드·아이팟 터치용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 'iOS 8'을 17일 업데이트 형식으로 배포했다.

이 업데이트는 아이폰 4s 이후 모델, 아이패드 2 이후 모델, 아이팟 터치 5세대에서 쓸 수 있으며, 신제품인 아이폰 6와 6 플러스에는 iOS 8이 미리 탑재돼 19일 출시된다.

다만 2011년 나온 아이폰 4s나 아이패드 2세대 등 오래된 모델에는 iOS 8을 설치하더라도 일부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데이트용 다운로드 파일의 크기는 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안정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여유 공간이 1.5기가바이트(GB)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데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와이파

이에 연결해야 하며 배터리가 충분히 남았거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플은 이 업데이트가 2008년 7월 앱스토어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이며 수백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사진, 메시지, 음악, 시리, 지도, 에어드롭 등 기본 앱에 많은 개선이 이뤄졌고, 활동량 추적과 심장 박동 모니터 등 건강관리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헬스' 앱이 추가됐다.

또 일부 2014년형 자동차와 연결해 운전 중에 아이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카플레이' 기능이 iOS 8에 등장했다.

여러 웹사이트와 신용카드의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해 놓고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열쇠고리)'이라는 기능도 생겼다.

애플은 이와 함께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를 iOS 8 자체에 통합하고 온라인·오프라인·클라우드를 아우르는 통합검색창을 도입했으며, 모바일 키보드 등 입력 인터페이스도 일부 개편했다.

앱스토어에도 상당한 변화를 줬다.

가족(최대 6명까지)이 아이디를 따로 만들면서도 책(아이북스), 음악·영화(아이튠스), 앱(앱스토어)을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족 공유(패밀리 셰어링) 기능과 함께 자녀가 콘텐츠를 구입할 경우 부모의 단말기에 이를 허용할 것인지 묻는 알림 메시지가 뜨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상세한 내용은 애플의 iOS 8 소개 페이지(www.apple.com/ios/)에서 찾을 수 있다.

## 작가들, 아마존 이사회에 전자책 갈등 중재 호소

(서울=연합뉴스) 정규득 기자 = 유명 작가들이 아마존과 공급업체 간의 관계가 과묵으로 치닫지 않도록 아마존 이사회가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아마존은 프랑스 대형 출판사 아셰트와 전자책의 수익 배분과 마케팅 비용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자 아셰트가 출판한 종이책의 배송을 늦추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가들은 15일 아마존

이사회에 보내는 서신 초안에서 회사 측의 조치로 아셰트 소속 작가들의 아마존 매출이 50~90%나 줄었다면서 "책을 제재하는 이런 정책을 이사회가 승인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하나의 기치 아래 이번처럼 다양하고 저명한 작가들이 뭉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면서 아마존이 문학계를 이런 식으로 대우한다면 회사의 좋은 평판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서신에 공감하는 작가들은 17일

까지 서명을 할 수 있다.

앞서 말콤 글래드웰과 존 그리샴, 도나타르 등이 포함된 작가 1천여명도 아마존에 전자책 정책의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FT는 아마존이 작가들의 이번 집단 행동에 대한 논평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책이 다른 매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자책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wolf85@yna.co.kr



## 아이폰6 시장 최고의 제품 IT 전문가 호평 이어져

(로이터=뉴스1) 김정환 기자 = 애플이 최근 내놓은 아이폰6 신제품 2종 모델에 대해 미국의 주요 매체 IT 전문가 칼럼니스트들이 극찬했다.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애플이 마침내 화면을 키운 게 적중했음을 깨달았고 소비자들은 혁신성은 떨어지나 성능은 개선된 아이폰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4.7인치 화면의 아이폰6가 역대 모든 스마트폰들 중 최고라고 밝혔다. 또 5.5인치의 아이폰6 플러스는 패블릿(phablet)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대화면' 안드로이드폰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트 모스버그는 제품평가 전문 블로그 'Re/code'를 통해 "굉장한 전화기로 하드웨어와 새로운 운영시스템(iOS8)을 함께 고려하면 시장 최고의 제품이다"며 "애플의 에코시스템의 문을 여는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에코시스템이란 외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콘텐츠, 소비자 지원 등을 제공하여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제프리 풀러는 기고를 통해 애플이 "화면 사이즈상의 단점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밝혔다.

복했다"고 밝혔다.

화면 크기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모스버그는 '따라잡기식'(catch-up) 특성이라고 말했으나 풀러는 환영할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풀러는 아이폰6 모델들이 나오기 이전의 아이폰 제품들을 가리켜 "2012년의 '과거의 틀'(bygone era)에 갇힌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물리 우드는 아이폰6 모델들이 "더 얇고, 더 넓고, 모서리는 더 둥글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윤이 나서 미끄러워 보이긴 한다"고 지적했다.

iOS8 소프트웨어와 카메라 기능은 모든 IT 칼럼니스트들의 극찬을 받았다. 다만, 배터리 수명에 대해선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블룸버그미디어그룹의 온라인 책임자인 조슈아 토폴스키는 아이폰6 모델들이 전작(前作) 아이폰들보다 작동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토폴스키는 "애플은 아이폰6 모델들이 역대 제품들 중 가장 빠르고 말할 것이며, 이는 거짓말이 아니다"며 "감탄을 부르는 전화기"라고 썼다.

아이폰6 모델들은 19일부터 미국에서 시판된다.

acenes@news1.kr

내게 필요한 바이오 제품은?

BIO ZONE SPECIAL PROMOTION

바이오제품 구매 고객께 슈퍼바이탈 5종 샘플 키트를 증정합니다.\* 한정수량

이벤트 컨디션 UP!

브라이트닝

속탄력 스페셜 크림

각질 및 피지 정돈

기능형 안티에이징

고보습 수분 케어

PROMOTION ITEM; Bio Essence, Brightgen Ampoule Essence, Bio Activator, Super vital Cream, Ultimate hydro Cream

# TASTE OF KOREA

# 코리아나

##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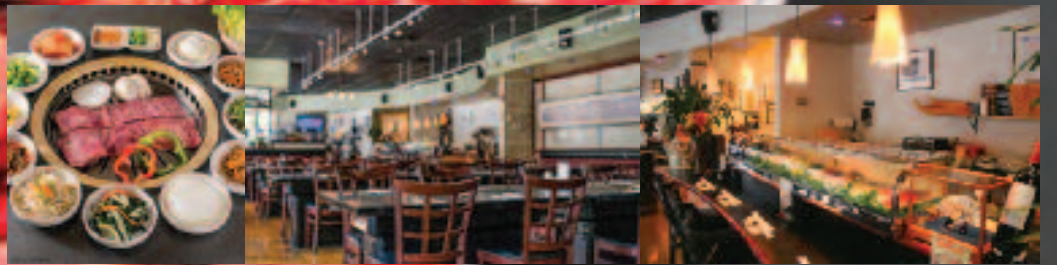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 박 대통령, '세월호법' 국회 파행 두고 "국회 세비 반납해야"

## "삼권분립에 입각 수사권, 기소권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아냐 선 그어 2차 합의안 여당의 마지막 결단, 세비반납 등 삼권분립 무시 발언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파행 상황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54일째 됐다"면서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그동안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이 두 차례에 걸쳐 도출됐다가 야당 의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측의 반대로 파기된 사실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 상태"라면서 "은 국민이 하나

가 돼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건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이는 3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수용)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회의 세월호 참사 관련 특검 추천과정에서 야당과 피해자 유족 측의 동의가 없으면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 '2차 합의안' 내용을 들어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키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이를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 간의 2차 합의안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중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어떤 것도 국민과 민생보다 우선할 순 없다. 부디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만약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엔 그 의무를 반납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국회의원 세비(歲費)도 돌려줘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을 겨냥한 정치권 안팎의 각종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도를 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며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와 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정치권의 '모독적 발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많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에서도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 등 사법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으며,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의 측근 김해경씨가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도 역시 사법당국에 조속한 국내 송환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 또한 거듭 주문했다.

ys4174@news1.kr

# Cheap or Quality?

##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Quincy College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http://www.ascenglish.com)

#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SEP. 19, 2014 - SEP. 25,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http://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 THIS FALL, FALL IN LOVE WITH OUR SAVINGS

비트 가을맞이 세일  
 Enjoy all your favorite fall specials with great savings throughout every department.

- Frozen Fish Fresh**  
 Cooked Whole Whelk (겉절이 굴뱅이) lb. **\$4.99**
- BBQ AUTHENTIC**  
 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냉동 차돌박이) lb. **\$9.99**
- Organic 100% DELICIOUS**  
 Olivia's Organic Spring Mix (블러베아 유기농 스프링 믹스) 2.2lb./pkg. **\$3.99**
- Produce BEST OF THE FRESH**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69**
- KOMAX**  
 Yellow Pastel Lunch Set (코맥스 노랑 파스텔 도시락) set **\$2.99**
- SAM SU GAB SAN**  
 Brown Rice (삼수갈산 현미) 15 lbs. **\$9.99**

## 5TH ANNIVERSARY SWEEPSTAKES!

CELEBRATE 5 YEARS OF HMART IN MASSACHUSETTS

SEP. 12TH - OCT. 5TH, 2014 AT ALL MA HMART STORES

H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경품 대추제에 참여하세요! (스마트카드 고객에 한함)

Hmart is celebrating its 5th year of business in the state of MA with special sweepstakes event. Get a chance to win Hmart gift certificate when you shop with your Hmart Smart Card! Simply fill out the bottom of your Shopping receipt and insert into our special bin!

**DRAWING DATE: OCTOBER 5TH, 2014 AT 5PM**

**1ST PRIZE (1 WINNER): \$1,000 HMART GIFT CERTIFICATE**  
**2ND PRIZE (5 WINNERS): \$300 HMART GIFT CERTIFICATE**  
**3RD PRIZE (10 WINNERS): \$100 HMART GIFT CERTIFICATE**

\* In order to give the most customers a chance to win, there will be no duplicate winners. (If you win a prize at both stores, Cambridge & Burlington, you will receive the higher prize.)

<b>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b>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b>Napa Cabbage</b> 배추 box <b>\$9.99</b>	<b>Crown Broccoli</b> 크라운 브로콜리 lb. <b>\$0.99</b>	<b>Onion</b> 양파 10 lbs./bag <b>\$5.99</b>	<b>Boneless Pork Loin</b> 돈가스용 돼지고기 lb. <b>\$4.99</b>	<b>Beef Flank Steak</b> 앞차마 양지 (육개장) lb. <b>\$7.99</b>
<b>FROZEN</b>	<b>Thinly Sliced Beef Short Plate</b>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우삼겹살 lb. <b>\$9.99</b>	<b>Marinated Tenderized Sliced Pork Single Belly</b> 양념 발집 삼겹살 lb. <b>\$5.99</b>	<b>Faroe Islands Salmon Steak</b> 페로아일랜드 연어 스테이크 lb. <b>\$5.99</b>	<b>Mackerel Pike</b> 꽁치 50-60's/lb. <b>\$1.99</b>	<b>TONGTONGBAY Seafood Mix</b> 통통배 해물모듬 1 lb. <b>\$3.99</b>
<b>KAGAYAKI</b>	<b>Premium Short Grain Rice</b> 카가키쌀 15 lbs. <b>\$19.99</b>	<b>NONGSHIM Shin/Neoguri Ramyun</b> 농심 신/너구리 라면 4.2oz. x 4ea./pkg. <b>\$2.99</b>	<b>BADAAECHAN Roasted Seaweed Laver</b> 바다애찬 장흥군 무산 재래김 0.14oz. x 8ea./pkg. <b>\$2.99</b>	<b>Hot Pepper Paste</b> 청정원 순창 우리쌀 찰고추장 6.6 lbs. <b>\$12.99</b>	<b>AJINOMOTO Shumai Dumplings</b> 아지노모토 슈마이 만두 Pork/Crab/Shrimp/17.46oz. <b>\$5.99</b>
<b>HAIOREUM</b>	<b>Imitation Crab Meat Sticks</b> 해오름 게맛살 2.2 lbs. <b>\$2.99</b>	<b>FOODCELL Vermicelli</b> 푸드셀 궁중당면 1.5 lbs. <b>\$2.99</b>	<b>ORION Choco Pie</b> 오리온 초코파이 11.85oz. <b>\$1.99</b>	<b>Onion Flavored Rings</b> 농심 양파링 3.17oz. <b>\$0.99</b>	<b>HAIOREUM Yogurt Flavored Drink</b> 해오름 요구르트 2.2fl.oz. x 20ea./pkg. <b>\$1.99</b>
<b>ESBENSHADE FARMS</b>	<b>Grade A Large Eggs</b> 에스벤shade 팜 라지 달걀 18cnt./pkg. <b>\$2.49</b>	<b>WESSON Cooking Oil</b> 웨슨 식용유 Vegetable/Canola/Corn - 123fl.oz. <b>\$6.99</b>	<b>Ceramic Tea Cup Set</b> 세라믹 5인 다기 세트 Cat/Set <b>\$9.99</b>	<b>Folding Stool</b> 접이식 의자 Pink/Blue/ea. <b>\$6.99</b>	<b>ZOJIRUSHI Elec. Rice Cooker &amp; Warmer</b> 조지루시 전기 밥솥 NP-HBC10XA/5.5cups/ea. <b>\$249.99</b>

## 종가집

사은품 증정 이벤트

**PURCHASE SELECT CHONGGA ITEMS AND RECEIVE A FREE GIFT!**

SEP. 20 - SEP. 21, 2014

**종가집 포기김치 2.2 LBS. 구매시, 종가집 옛맛 무말랭이 7.05 oz. 무료증정!**

**종가집 맛김치 5.5 LBS. 구매시, 종가집 깍두기 1.1 LBS. 무료증정!**

**종가집 포기김치 2.2 LBS. POGGI KIMCHI & TAKE HOME A FREE CHONGGA'S 7.05 OZ. SEASONED DRIED RADISH.**

**종가집 맛김치 5.5 LBS. MAT KIMCHI & TAKE HOME A FREE CHONGGA'S 1.1 LBS. CUBED RADISH KIMCHI.**

# 박영선 돌아왔지만... 세월호법은 더욱 미궁속으로

## 야당 혼란 겪는 사이 여당 강경 드라이브... 여야 모두 '양보 여지 없어' 입지 흔들린 박영선도 앞으로 강경 입장 고수할 듯

(서울=뉴스1) 김유대, 서미선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직 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논란 끝에 당무에 복귀했지만 당면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 전망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든 형국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내홍에 휩싸인 사이 새누리당은 더욱 강경 모드로 돌아섰고, 상처난 박 원내대표의 입지 역시 여야 협상 전망에 먹구름을 끼게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무 복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법 문제는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며 "그러나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여야 2차 합의안'이 마지막 양보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여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졌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과 부단한 대화를 통해 국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상의 여지는 크게 열어두지 않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두 번에 걸친 합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 와서 또 양보한들 그것이 끝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가 거취 문제를 두고 집거에 들어가자 전인 지난 13일까지 회동에서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과 민생·일반법안의 분리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압박했고,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당시보다 협상 주변 상황이 더욱 꼬이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조만간 접촉을 갖더라도 헛심 공방만 펼칠 공산이 크다.

박 원내대표로선 거취 문제를 두고 한 차례 흔들린 만큼, 당내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기존보다 더욱 완강한 입장으로 여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가 현재 야당 내부 상황에서 협상에 전권을 갖고 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근



나흘만에 당무에 복귀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발언과 관련해 "삼권분립 운운하며 세월호 특별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순적 통치행위를 했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에 최후통첩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결국 그동안 세월호 협상을 청와대가 뒤에서 주도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대야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true@news1.kr

## 보수혁신특위 출범...김문수 위원장 의결

### 김무성 대표, 자신의 라이벌인 김문수 통큰 기용 돈보여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무성 대표가 내정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보수혁신특위 위원장의 임명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당내 혁신특위 위원으로 재선의 김영우, 김용태, 조해진, 황영철 의원, 초선인 강석훈, 민병주, 민현주, 서용교, 하태경 의원, 안형환 전 의원 등 10명을 임명했다.

혁신특위는 당내 인사와 외부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 인사 9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특위의 활동기간은 향후 6개월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며 "김 전 지사는 새누리당에서 개혁적 이미지가 가장 강하고 정치 행정 경험이 풍부한 검증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선당후사의 정신을 잘 실천할 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새누리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혁신을 내세웠지만 대부분 공염불로 끝났다"며 "새누리당은 영혼 없는 혁신이 아니라 행동하는 혁신, 실천하는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새누리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혁신의 첫 걸음으로 지금까지 작은 실천을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정치문화 제도와 정당 민주화, 정치 전반과 국회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꼭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특위의 논의 과제와 관련,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잘못된 정치문화부터 바꿀 것"이라며 특히 "정치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90%가 잘못된 공천권 때문이다. 이것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다음으로 정당 민주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특위 논의 과제에 개헌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했다.

ydkim@news1.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 의원

### 1년 4개월여만에 문희상 비대위호 다시 출항, 관리형 비대위 꾸려갈 듯

(서울=뉴스1) 박정양,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18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열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문희상 의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추천단의 문 의원의 추천 결과는 의원총회에 보고되며, 이후 박영선 원내대표가 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지난해 5월 민주당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또 다시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상임고문단, 19대국회 부의장단으로 구성된 비대위원장 추천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비대위원장 추천단회의에는 권노갑, 김원기, 김상헌, 임채정, 정대철, 이부영, 문재인, 이해찬 상임고문 등 22명이 참석했다. 손학규, 박상천, 안철수, 오충일 고문과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5명은 불참했다.

문 의원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계의 지지 뿐만 아니라 동교동계 원로 등 중진들의 고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패배 직후인 2013년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무난하게 당을 이끄는 등 검증된 경험이 추천의 주요 배경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시절인 지난 2005년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추천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당의장을 역임하는 등 당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의에 앞서 문 의원과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석현 국회부 의장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희상 의원이 당의 위기관리를 잘 해내실 분으로 기대한다"며 문 의원 지지를 표명했다.

이 부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선출 막판에 각 계파별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저도 계파의 한 축이 되는 상황이 됐다"며 "저는 무게파이기 때문에 결국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과 원혜영 유인태 의원도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0년 전통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것만 빼고 혁신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를 잘 마무리 지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곤궁이통(困窮而通: 손 쓸 도리가 없는 지경에 이르면 오히려 활로가 생긴다는 뜻)이라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노력하면 답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라며 "여기 계신 선배님들 지혜를 빌어 오늘 새정치연합 미래를 기약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사실상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관리형 비대위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내년 초에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당내 계파 갈등은 지금부터 시작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pjy1@news1.kr

맛있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컵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회사 상호가 변  
경되어도. 항상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KO / MÃO / HAND / 손 / MANUS / MAIN /

NETWORK HEALTH는 이제

TUFTS Health Plan

NETWORK HEALTH

입니다.

고객을 향한 우리의 약속도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etwork-Health.org](http://Network-Health.org) 에서 확인하십시오.

Tufts Health Plan - Network Health 를 포함하여 고객님의 건강 계획 옵션에 관한 모든 것은 MAhealthconnector.org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4 Tufts Health Public Plans, Inc.

# 쌀 관세율 513% 합의...농민단체 난입해 계란 투척

## 정부 관세율 변경위해선 국회 동의 받아야

(서울=뉴스1) 김유대, 유기림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쌀시장 개방(쌀 관세화)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13%로 산정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이 당정협의회장에 난입해 계란과 고춧가루를 투척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면서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 "쌀 관세율은 FTA 협정에 부합하면서도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513%로 산정해 통보하고, 회원국 검증에 치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관세율을 설명하자 전농 소속 회원들은 당정협의장에서 "쌀 전면 개방을 중단하라. 농민을 속이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 장관이 "정부에서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진정시켰지만 이들의 격한 항의는 진정되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당신들 예의부터 지켜야 한다. 나가달라"면서 "이렇게 와서 폭력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이들의 행동을 제지했지만 반발은 이어졌다.

30여분간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결국 전농 회원들은 국회 방호원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이렇게 죽어나 저렇게 죽어나 똑같다"고 강하게 저항했다.

일반인이 국회 의원회관에 출입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등의 출입 허가가 있어야 한다. 농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의 보좌진을 통해 의원회관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내가 정리된 뒤 이어진 회의에서 이 장관은 "전농 분들이 와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전농까지 참여한 쌀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지금까지 여섯 차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농 주관으로 전국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관세화와 FTA를 비롯한 농림부 현안 및 내년도 예산안'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난입한 농민단체 회원들에게 '나가달라' 말하고 있다

동시다발적으로 쌀 개방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대부분 농민단체들이 쌀관세화에 찬성하지만 소수의 반대 목소리가 불안을 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WTO 체결 과정에서 관세를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513% 관세율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쌀 산업 발전 대책을 충실하게

만들어 농민들의 우려를 잠재워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513% 쌀 관세율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쌀 관세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513%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된 것"이라며 "농민들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지만 정부와 당에

서도 피해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513%를 지키겠다고 하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이 정부를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제동 장치가 있으니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ydkim@news1.kr

## 관세화란 이름의 쌀 전면개방 쟁점 뚜렷한 시각차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만약 관세화 유예를 추가 협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답변) 의무수입물량은 점차 늘어나 2015년에는 쌀 82만 톤을 수입해야 합니다. 국내 소비량의 20% 가까운 쌀이 수입될 경우 과잉 공급으로 인해 국내 쌀 시장의 붕괴가 우려된다. 현재 기존 수입된 쌀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가공용 쌀은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재고가 쌓인 상황이에요. 수입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작년 한 해 200억 원이 들었어요.

반면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밥쌀 소비량은 1995년 1인당 106.5kg에서 2005년 80.7kg, 2013년에는 67.2kg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쌀 소비량 또한 1995년 553만 6000톤에서 2013년 449만 1000톤으로 100만톤 이상 감소했구요.

쌀 소비가 줄어남은 쌀이 많은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더 많이 수입한다면 그 결과는 국내 쌀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미디어 오늘 지적) 농지축소에다 이상기후가 겹쳐 쌀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만도 529만 톤이었는데 10년 새 100t 가까이 줄었다. 2007년 27년만에 큰 흉년이 들어 생산량이 441만 톤으로 줄었다

. 2008년 484만톤으로 다소 회복되었다가 2010년 이후 내리 3년간 더 큰 흉년이 들었다. 생산량이 2010년 430만톤, 2011년 422만톤, 2012년 401만톤으로 급감했는데 지난해는 423만톤으로 다소 늘었다. 이에 따라 쌀 자급률이 80%대로 뚝 떨어졌다. 쌀이 남아돈다고 난리였지만 이제 수입해야만 먹고 산다.

개방 이후에도 관세율 통해 국내 쌀 시장 보호 가능?

정부 답변) 관세화는 관세라는 장치를 통해 해당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관세의 완전한 철폐 또는 감축을 합의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데요. 쌀을 관세화 해도 추가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 대상으로부터 제외해 왔다. 이 방침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모든 FTA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미디어 오늘 지적)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무관세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전방위 FTA와 TPP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WTO를 통해 고율의 관세를 보장받더라도 그것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식량은 해외에서 사서 먹는 게 싸다는 비교우위론자에 포획된 박정권이 쌀시장 전면 개방을 강행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식량주권 실현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벼를 든 쌀개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쌀 전면개방 국민 70% "충분한 동의 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오동현 기자 = 정부의 쌀 전면개방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878명(표본오차 ± 3.3%p)을 대상으로 정부의 쌀 전면개방과 관련해 여론조사(휴대전화 RDD 방식)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9.8%로,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는 응답(18.7%)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식량주권의 문제이므로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더 이

상 피할 수 없으므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31.5%)보다 많았다.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 산업 피해를 묻는 물음에는 "전면 개방하게 되면 쌀산업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응답(68.3%)이 "전면 개방해도 쌀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24.3%)보다 많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쌀 개방 문제를 처리하려 했는지 알 수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독단적이고 불통의 자세로 쌀 전면개방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자국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dong85@newsis.com

FTA나 TPP를 하게 되면 관세가 낮아져 쌀 수입이 늘어나지 않나요?

정부는 지금까지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며, 이 방침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모든 FTA(TPP 포함)에서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환태평양 인근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

#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항공권 할인
-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HANA(4262)**  
 Cell.phone: 617-818-2772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Dedicated to Your Health

# Icon Dental

##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고용 맞다 판결

865명 '직접고용'...69명에 대해서는 "현대차에 고용 청구할 수 있다"  
김태욱 변호사 "모든 공정에 대해 '사내하청은 파견' 인정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34)씨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지 2년 7개월만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내하청 근로자 900여명이 '현대차와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은 각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 중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관사 정창근)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1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과 근로자 64명이 현대차 사측과 하청업체 등 15곳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소송을 낸 근로자들 중 181명은 지난달 현대차 사측과 잠정합의 후 소 취하서를 제출해 현재 소 취하의 효력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서 현대차와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모두 865명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들의 현대차와 직접고용 관계는 즉시 성립한다.

또 근로자 69명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현대차 사측에 직접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

정됐다.

이밖에 소송 이후 현대차가 신규채용한 40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현대차 사측이 이들을 신규채용하기 전에도 이미 직접고용 근로자였다고 전제해 이들이 청구한 임금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청구한 임금은 585억7273만여원이며 재판부는 이 중 232억0169만여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근로자 측 소송 대리인단의 김태욱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현대차 사측은 그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씨에게만 국한된 판결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모든 공정에 대해 (근로자지위가) 인정됐기 때문에 사내하청 자체가 파견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최씨가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하청업체 Y기업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가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직접고용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569명은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은 대법원이 "최씨는 하청업체로부터 파견된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현대차에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뒤집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지 3개월만에 제기됐다.

이후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2012년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올해 초 한번 연기됐다. 이어 지난 8월에도 현대차 사측과 근로자 일부 사이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돼 일부 근로자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한번 더 연기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19일에도 사내하청 근로자 77명이 현대차 사측과 하청업체 등 30곳을 상대로 낸 같은 내용

의 소송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5일에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낸 소송의 선고도 내려진다.

이밖에 한국GM, 현대하이스코,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도 역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bilityk1@news1.kr

## '폭행 논란' 세월호 유족, 경찰 "쌍방 폭행 조사"

(서울=뉴스1) 박현우, 성도현 기자 =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것으로 신고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경찰조사를 받게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일방 폭행인지, 상호 간에 폭행이 오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긴급임원회의 후 이번 폭행시비에 휘말린 김병권 위원장과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등 총 9명의 임원진 전원 사퇴를 결정한 동시에 18일 오전 중 경찰서에 출석해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 5명은 이날 0시4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길에서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가족은 최근 상황이 어려워진 세월호 유가족 위로차 김현(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련한 자리에서 반주를 곁한 저녁식사를

한 뒤 식당에 부탁해 유가족의 차를 경기도 안산까지 운전할 대리운전 기사 이씨를 불렀고 요청을 받은 이씨는 0시10분쯤 일행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이씨가 도착한 뒤 30분 남짓 지나도록 이씨를 대기하게 했고 이에 항의하는 자신을 세월호 대책위 김씨 등 5명이 폭행했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또 김씨 등은 이를 말리던 행인 노모(36)씨 등 2명도 때린 것으로 신고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행인 노씨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노씨는 "기사가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했지만 고 유족이 다친 건 대리기사를 발로 차면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유가족은 일행 중 일부가 차에 출혈이 있는 등 상처를 입어 오전 1시 30분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2명은 이후 경기 안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얼굴, 목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대리기사 이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당초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이날 오전 11시 경찰서로 나올 것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했지만 유가족은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경찰에 나오지 않았다.

참고인과 목격자 진술을 끝낸 경찰은 이후 유가족과 일정을 조율해 폭행시비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진 것으로 알려진 김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유가족 4명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유가족이 출석하면 일반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 따라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방폭행인지, 상호 간에 폭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dhspeople@news1.kr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다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 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 결정

공소심의위 "1심 판결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사유"

(서울=뉴스1) 진동영, 오경묵 기자 = 검찰이 대선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항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원 전원장 등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에 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공소심의위원회는 "1심 판결의 일부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

달했다.

원 전원장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사이버전담팀 등에게 지시해 대선 관련 글에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관사 이범균)는 원 전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chindy@news1.kr

# ‘서로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

2014년 9월 21일 오후 1시 **첫예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담임 흥원철 목사

[www.kpcow.weebly.com](http://www.kpcow.weebly.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우스터 장로교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orcester



73 Lancaster St., Worcester, MA 01609 Tel: (781) 354-1843 / [evergreenwon@gmail.com](mailto:evergreenwon@gmail.com)

## 보스톤 **코리아** 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mailto:bostonkorean@hotmail.com)

Beef Soup in Seoul  
**서울설령탕**  
SEOUL SOULLONGTANG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 SUMMER SPECIAL 냉면개시!



###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http://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http://SeoulFoodBoston.com)

##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철

미주한인계수교장교회

##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 오전 11시 30분  
 수요일예배 :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새벽기도회 : 오전 6시 (별요일 제외)

담임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주소: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임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엔티비(AN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폭탄세일!**

**\$14.99** (2년 약정시)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4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0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KBS MD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Century 21**  
 Avon

**김택운**  
 Realtor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삼천년을 관망기운으로 삼는  
**제실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임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학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방: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개척운전: 화요일 저녁 8:30(스카이프)  
 영학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세생방 센터 / 17년간 헌인들을  
 위해 매달 무료 집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 합창단원모집



보스톤 멘토스 음악원에서  
B.Mentors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 독창적인 스트레칭 체조를 통한 발성 호흡의 이해와 자기만의 음색 개발
- 전문적인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한 발성 원리의 이해와 윤택한 소리의 완성
- 솔로, 중창, 합창곡 연습을 통한 음악의 이해
- 연주를 통한 지역공동체 봉사 및 연례 정기연주회

**보스톤 멘토스 청소년합창단 (B.Mentors Youth Chorus)**

함께 합창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며 하모니를 만들어갈 청소년합창단원을 8-12학년의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연습 시간: 매주 일요일 오후 4:30~6:00 회비: 가을학기 \$150, 봄학기 \$200

기간: 1년 프로그램 (가을학기: 2014년 9월 28일 ~ 12월 14일,

봄학기: 2015년 1월 11일 ~ 6월 14일) \*연주회 일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스톤 멘토스 성인합창단 (B.Mentors Adult Chorus)**

음악과 문화를 사랑하는 한인을 대상으로 성인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B.Mentors 성인합창단은 독창적인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습: 매주 목요일 오후 7:30~9:00 회비: 월 \$30

**접수 및 문의**

이메일: bomentorsmusic@gmail.com 전화번호: (617) 218-7555

주소: 326 Washington St, Annex, Suite 10, Wellesley Hills, MA 02481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mailto: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 MAKI MAKI

브라이트 대형 스시 뷔페 | Japanese Sushi & Seafood Buffet



스시 외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5년 이상 경력의 샐러드 전문 요리사 (Cold dish chef)를 구합니다

마키마키에서는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뷔페스타일(all-you-can-eat)의 식사뿐만 아니라, 한정된 기간 동안 주문식 스시

(made-to-order) 스타일의 식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주방장의 열정과 엄선된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다양한 일식 및 중식 요리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Lunch 10%**

성인 3명 이하, 한 테이블에 쿠폰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명 이상은 정상가격)  
다른 할인이나 쿠폰 중복 사용 불가 / 공유일 사용 불가  
유효기간: 2014년 10월 16일까지

**Dinner 15%**

성인 3명 이하, 한 테이블에 쿠폰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명 이상은 정상가격)  
다른 할인이나 쿠폰 중복 사용 불가 / 공유일 사용 불가  
유효기간: 2014년 10월 16일까지

Cannot combine with other coupon and other promotions  
Not valid on weekend and holiday

## 매일 행운 추첨 무료 저녁 식사



매일 처음 10번째까지 고객에게  
무료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저녁식사 시간에 레스토랑에 오셔서, 안내데스크에 무료저녁식사 추첨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10번째까지의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매일 두분께 당첨의 기쁨을 드립니다. (12세 이상의 참가자에 한함)

행운을 빕니다!

**Lunch**

11:00am ~ 2:30pm  
Mon~Thur \$17.75  
Fri~Sun, Holiday \$21.75

**Dinner**

Mon~Thur: 5:00pm~9:30pm \$28.95  
Fri~Sat: 5:00pm~10:30pm \$30.95  
Sun, Holiday: 4:00pm~9:30pm \$30.95

617.783.1888

304 Western Ave. Brighton, MA 02134  
Makimakiboston.com

# 패트리어츠 패싱 공격에 변화 필요하다

패스 특정 선수에게만 집중현상, 수비 쉽게 방어할 수 있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NFL 정규시즌 2주차 경기에서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상대로 30 대 7 승리를 거두었다.

0승 2패로 시즌을 시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하고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었지만, 패트리어츠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공격 부분, 특히 쿼터백 탐 브래디가 더 많은 활약을 해주어야 한다.

브래디는 바이킹스와의 경기에서 22번의 패스 시도에 15번 패스 성공, 149패싱 야드,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4번의 인터셉션을 당한 상대편 쿼터백 맷 캐슬에 비하면 준수한 성적이지만 엘리트 쿼터백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있다.

브래디의 패스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 외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특정 리시버에게 패스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와이드 리시버 줄리안 에들먼과 타이트 엔드 랍 그롱코스키에게 브래디의 패스가 몰리고 있다. 바이킹스전에서 브래디가 성공시킨 15번의 패스 중 10번을 에들먼과 그롱코스키가 받았고 22번의 패스 시도 중 13번이 이들에게 집중되었다.



패트리어츠가 바이킹스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공격부분에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패트리어츠의 로스터에는 7명의 와이드 리시버와 3명의 타이트 엔드가 있다. 에들먼과 그롱코스키 외에도 애런 답슨, 쉐인 버린, 브랜든 라펠 등의 재능 있는 선수들이 브래디의 패스를 기다리고 있다. 브래디는 이런 선수들에게 골고루 패스를 분배할 필요가 있다.

브래디는 바이킹스 전 이후 주중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당연하다. 모든 선수에게 풋볼을 패스할 수 있어야 수비를 하기 어렵고, 이것이 공격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점이다”

라며 “(지난 경기에서) 에들먼과 그롱코스키에게 패스가 집중되었다. 다른 선수들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해야 했다.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다음 경기에서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지난 2번의 경기에서 전체 패스 시도 중 41%가 에들먼과 그롱코스키에게 집중되었다. 성공한 패스 중 45.5%를 에들먼과 그롱코스키가 잡았다.

패스가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면 패

트리어츠를 상대하는 팀들이 경기를 준비하기가 쉬워진다. 에들먼과 그롱코스키를 집중 마크하는 전술을 준비하면 패트리어츠의 공격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빌 벨리치 감독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공격을 할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닝과 패스의 비율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능 있는 선수들을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코칭 스태프가 더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브래디의 패스가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브래디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브래디의 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리시버들이 정해진 루트를 따라 움직이며 상대 수비수의 마크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오픈시브라인에서는 브래디가 오픈된 리시버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결국 팀 전체의 노력이 있어야 패트리어츠의 공격이 살아날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진다

# 주목해야 할 한국의 축구천재 '코리아 메시' 이승우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코리아 메시' 이승우(바르셀로나)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자 팀 동료에게 완벽한 패스로 골을 돕는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7일(한국시간) 오후 6시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챔피언십 4강전에서 7-1로 대승을 거뒀다.

경기 전까지 3경기 연속 득점포를 쏘아 올렸던 이승우는 이날 1골 4도움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4



경기에서 5골 4도움을 올린 이승우는 2002년 이후 12년만의 한국에 우승 트로피를 안기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전반 초반 이승우보다 빛났던 것은 바르셀로나 유스 동료인 장결희였다. 장결희는 전반 5분 만에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에 이은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내며 기세를 높였다.

전반 여러 차례 찬스를 놓쳤던 이승우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페널티킥으로 득점포를 가동했다. 후반 2분 장결희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킥커로 나서 가볍게 밀어 넣었다.

이번 대회 4경기 연속

득점을 터트린 이승우는 동료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며 기쁨을 나눴다.

그때부터 이승우의 도움쇼가 펼쳐졌다. 이승우는 자신의 득점이 나온 지 2분 뒤에 장결희에게 완벽한 침투 패스로 팀의 3번째 골을 도왔다. 이어 후반 8분에 왼쪽 측면에서 반대쪽에 자리하고 있던 장재원(현대고)에게 태백 크로스로 자신의 2번째 도움을 기록했다.

이승우는 후반 15분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 이후 이상현(현대고)에게 패스를 내줘 도움 헤트트릭을 달성한 뒤 이상민(현대고)의 헤딩슈팅까지 도왔다. 이승우의 원맨쇼에 당한 시리아 수비수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떨궜다.

최진철 감독은 이승우를 후반 20분에 교체하며 결승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승우가 20일 8시 북한-호주전 승자와 맞붙는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천재성을 발휘하며 우승 트로피를 안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lexsei@news1.kr

## 일본 반응, "이승우는 한국의 메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이승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뜨겁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U-16 축구대표팀은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승우의 멀티 골에 힘입어 2-0으로 승리를 거뒀다.

전반전 중반까지 일본에게 밀리던 한국은 42분 이승우가 김정민의 도움을 받아 골을 터뜨리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이승우는 후반 2분에도 60m 폭풍 드리블로 상대 골키퍼를 제치고 추가골을 넣었다.

이를 본 일본 열도의 반응은 뜨거웠다. 경기 직후 일본 축구전문지 케키사카는 “한국의 메시에게 당했다”고 보도했고, 또 다른 언론산 케이스포츠는 수비수 도안리쓰의 인터뷰를 인용해 “1대1에서 이기지 못했다. 이승우(10번)의 개인기가 대단했다”고 말했다.

# 아시안게임 '스타워즈', 라이벌을 넘어라

(보스턴 = 뉴스1스포츠) 김소정 기자 = '라이벌을 넘어라.'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스포츠 스타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36개 종목에서 메달을 위한 선수들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라이벌을 넘지 못하면 '금빛 꿈'도 사라진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수영의 박태환을 비롯해 리듬 체조의 손연재, 체조의 양학선 등 한국의 스타들이 라이벌과의 빅매치를 기대하고 있다.

## •수영 세계 최고의 대결, 박태환 vs 쑨양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의 최대의 빅매치는 바로 박태환과 쑨양의 라이벌전이다. 세계인의 눈이 쏠리는 게임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5·인천시청)과 2012년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쑨양(23)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최고의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박태환은 2회 연속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르며 아시아 수영의 스타로 떠올랐다. 박태환은 이번 대회에선 자유형 100, 200, 400, 1500m에서 쑨양과 격돌한다. 박태환은 올 시즌 200m에서 아시아 1위 기록을 세우면서 단거리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쑨양은 1500m에서 세계 기록을 보유하며 장거리에 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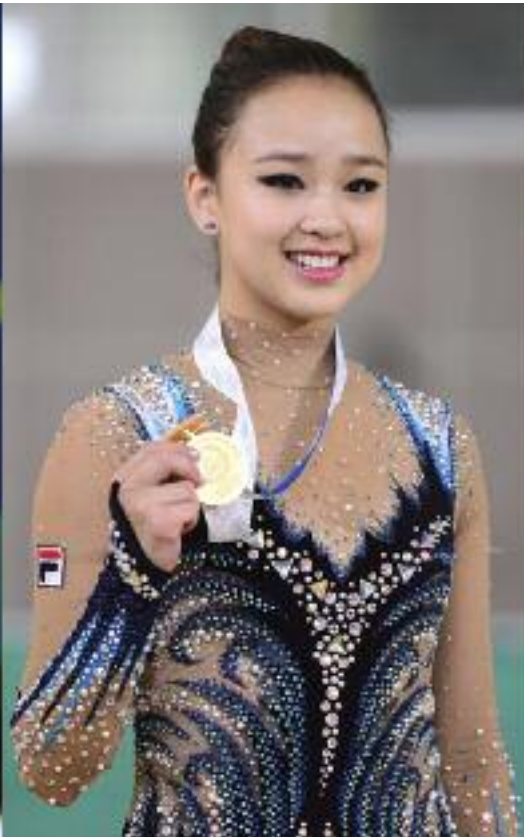
박태환과 쑨양의 라이벌전은 400m가 승부처다. 박태환은 2006년 도하, 2010년 광저우 대회에서 2회 연속 40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승승장구하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쑨양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이번엔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호재가 있다. 박태환이 지난 달 23일 팬 퍼시픽 챔피언십 400m 결승에서 3분43초15로 우승하며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하는 등 최근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쑨양은 지난 3월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상실했었다. 쑨양의 올 시즌 최고 기록은 지난 5월 중국 수영대회에서 기록한 3분45초12. 박태환보다 뒤지는 기록이다.

하지만 쑨양은 최근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400m 페이스가 런던 올림픽 때보다 좋다"며 아시안게임에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 •'동양 요정'들의 맞대결, 손연재 vs 덩썬웨이

리듬 체조의 요정 손연재(20·연세대)는 중국의 덩썬웨이(22)와 맞붙는다. 덩썬웨이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손연재(5위)를 누르고 4위에 올랐다. 손연재의 아성에 도전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선 한국의 간판 스타들이 라이벌들과 진검 승부를 겨룬다. 왼쪽부터 박태환, 손연재, 양학선

그러다 중 덩썬웨이는 올 시즌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월드컵 대회에는 거의 나서지 않고 아시안게임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이었던 지난 달 소피아 월드컵에서 손연재가 개인종합 동메달을 따며 덩썬웨이(7위)를 제압, 한국 리듬 체조 사상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 전망을 밝혔다.

하지만 덩썬웨이의 부상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 •도마 위에 자존심을 건 남북 대결, 양학선 vs 리세광

'도마의 신' 양학선(22·한국체대)과 북한 체조의 간판 리세광(29)의 대결도 흥미진진하다.

양학선은 '양학선(뿔뿔을 앞으로 짚어 세 바퀴 비틀기)'과 '양학선2(뿔뿔을 옆으로 짚어 세 바퀴 반 비틀기)'라는 기술을 보유하면서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획득, 한국 체조의 간판을 넘어 세계 체조의 간판으로 우뚝 솟았다.

특히 지난해 10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신기술 '양학선2'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양학선에 도전장을 내민 리세광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다. 자신의 이름을 건 '리세광(뿔뿔을 옆으로 짚어 무릎을 굽히며 두 바퀴 돌고 몸을 펴며 한 바퀴 비틀기)'이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양학선'과 '양학선2', 리세광이 구사하는 '리세광'은 모두 도마 최고 난도인 6.4점짜리 기술이다. 노장인 리세광이 양학선의 기세를 누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끝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 •레슬링의 존재 이유...매트 위의 혈전, 김현우 vs 하디 알리자데 푸리나

한국 레슬링의 대들보 김현우(26·성생명)는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5kg급에서 하디 알리자데 푸리나(24·이란)와 대결을 펼친다.

하디 알리자데 푸리나는 2012 아시안선수권대회에서 74kg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 체급에서 아시아 최강 자리에 올랐지만 66kg에서 한 체급을 올린 김현우에게 밀려 2인자로 전락했다.

김현우가 74kg으로 체급을 올리면서 최근 국제레슬링연맹(FILA)의 체급 조정으로 두 선수는 75kg급에서 함께 뛰게 됐다. 체급 조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종합대회인 만큼 두 선수의 자세는 남다르다. 하지만 최근 경기 성적을 보면 김현우가 앞서 있다.

김현우는 2013 아시안선수권대회 74kg급 결승에서 하디를 처음 만나 4-1로 이긴 뒤 2014 월드컵 팀 매치에서도 9-1로 승리하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의 미래를 밝게 했다.

## •'미녀 총잡이'의 백발백중 과녁 맞추기, 김장미 vs 장정징

2012년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장미(22·우리은행)와 장정징(26·중국)의 매치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장미는 2010년 제1회 유스올림픽 공기 권총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하며 유망주로 떠올랐다. 런던 올림픽과 방콕 월드컵 파이널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25m 권총 부문에서 세계 선두에 올랐다.

김장미는 지난 7월 베이징 월드컵에서도 장정징(동메달) 등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 1위를 확인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였던 지난 10일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제 51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여자 25m 권총 금메달 결정전에서 장정징에 밀려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김장미는 새로운 라이벌을 상대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설욕을 갈음 예정이다.

sozung@news1.kr

## “쑨양 잘 봤다” 박태환, 도발 광고 반박 영상 ‘인기’

(보스턴 = 뉴스1스포츠) 온라인 뉴스팀 기자 = 최근 트위터를 통해 공개된 쑨양의 '박태환 도발 광고 영상'에 대응하는 반박 패러디 영상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한 트위터 계정에 박태환이 과거 촬영한 광고 영상에 목소리를 덧입혀 제작한 유머 영상 2건이 공개됐다.

이 영상은 '쑨양, 광고 잘 봤다!'라는 제목으로 과거 박태환이 촬영했던 광고에 쑨양이 찍었던 광고 영상과 목소리를 덧입혀 만들었다. 영상에서 쑨양의 영상 통화를 보고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박태환은 "공기 중에서도 수영하는" 모습으로 자신감을 나타내 웃음을 자아낸다.

더빙 영상 제작자 유준호 씨가 트위터 계정 소유자의 제안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지난주 공개된 쑨양의 박태환 도발 광고를 재치 있게 패러디해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영상에서 유 씨는 '쑨양, 광고 잘 봤다! 진짜 수영으로 겨뤄보자. 언제든 팀버라'라는 말로 쑨양의 도발을 받아쳤다.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적 / 50여 개국 다국적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455,0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000 sf.  
Many updates  
좋은 주거 환경, near Train Station  
이현주 401-935-3397



\$455,900  
Tewksbury, MA  
4 Beds, 3 Baths, 2714 sf.  
깨끗하게 잘 관리된 집  
넓은 공간, 좋은 가격  
뉴스타부동산 781-259-4989



\$729,900  
Methuen, MA  
4 Beds, 2.5 Baths, 3907 sf.  
잘 관리된 넓고 아름다운 주택  
Jay Lee 781-654-5281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단독주택 Single Family



\$499,900  
Sharon, MA  
3 Beds, 2 Baths, 2235sf.  
Flexible floor plan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465,000  
Newton, MA  
3 beds, 1 bath, 1180 sf.  
Wonderful 3 bedroom single  
family on quiet side street  
OT Kim 617-620-8242



\$499,900  
Lexington, MA  
2 Beds, 1 Baths, 816 sf.  
Amazing opportunity to own  
house in Lexington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콘도 Condominium



\$61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



\$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군,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렌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100% 한국인 부동산 그룹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문화가정 상담 / 20여 개 언어 / 100여 개의 도시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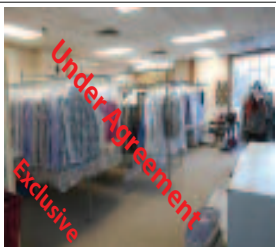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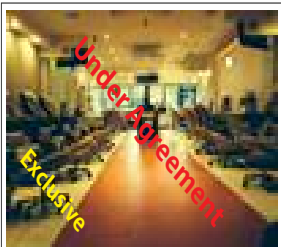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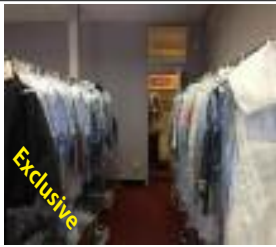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b>Drop off Store</b>  \$45,000 <b>Lincoln, MA</b>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b>Restaurant</b>  \$250,000 <b>Boston, MA</b>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Business Consulting</b>  <b>레스토랑 셋업 컨설팅</b> SJ Park 617-304-7001	<b>Nail Salon</b>  \$280,000 <b>Burlington, MA</b>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b>Drop off Store</b>  \$50,000 <b>Wakefield, MA</b>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b>Full Plant 세탁소</b>  \$300,000 <b>West Boylston, MA</b>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b>Drop off Store</b>  \$60,000 <b>Concord, MA</b>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b>Clothing Store</b>  \$100,000 <b>Mattapan, MA</b>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b>Cafe</b>  \$250,000 <b>Boston, MA</b>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b>Deli</b>  \$99,900 <b>Chelsea, MA</b>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b>Grocery</b>  Ask agent for price info. <b>Allston, MA</b>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b>Jewelry Business</b>  \$74,990 <b>Natick, MA</b>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b>Investment</b> <b>E-2 &amp; EB-5 투자</b> 문의 781-259-4989	<b>Full Plant Cleaner</b>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b>Convenience Store</b>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b>병원 건물 렌트</b> <b>Worcester</b> 3000 SF. S.J Park 617-304-7001
<b>Full Plant Cleaner</b>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b>커머셜</b> <b>커머셜 건물 투자</b> S.J Park 617-304-7001	<b>비즈니스 빈자리</b> 센트럴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b>비즈니스 빈자리</b> S.J Park 617-304-7001	<b>APT Rental</b>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www.Stevesuh.com

**617-877-3435**

Vol 10, No.37 September 19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선물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 Take a Gondola Ride in the Charles River!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지선 아이리포터 = One day as I was jogging in the Esplanade on the Charles River, I saw the strangest yet most exquisite sight: a gondola like the ones from Venice! Surely enough, the boat and the gondolier seemed out of place for one second but it seemed like a great experience to see Boston from the river.

Ever wondered how to celebrate a memorable birthday, anniversary, or even a proposal to a special someone? Boston offers gondola rides from early May to mid-October by the company "Gondola di Venezia", or well known as "Boston's Best Kept Secret". What makes Gondola di Venezia so unique is that each gondola boat is built and shipped from Venice, Italy. By keeping the old Venetian traditions, the gondola experience is no different than the original one in Venice. Nestled in the Esplanade on the Charles River, they offer a private tour of Boston and Cambridge skylines through three distinct tour packages, starting at \$99. The packages might include



It's a perfect event for couples to sit back, sip some champagne, listen to Italian music, and indulge the sights of Boston, including a lovely sunset. Relax in the river and enjoy a night you will never forget! A Boston gondola



snacks on board of cheese, crackers, chocolates, and strawberries, an accordion player, or a dozen roses. You may bring a bottle of wine or champagne of your choice.



ride will make a sweet memory of your stay in Boston.  
leejisun@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 한인 업소록

##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문의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술/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철학자협회	603-89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화포럼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맹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수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베링엄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등포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이시언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의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누리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우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덱펀던트(휴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뱅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텀링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우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창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 금융/모기지

인덱펀던트(휴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 뱅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텀링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우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텀링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우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뜰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도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9/5  
참스포드 세탁소에서 카운터 보실 분(파트타임) 구합니다. T. 781-738-2627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9/12  
세탁소에서 프레스하실 분 구합니다. 드라이와 셔츠 각 1명 (N. Andover) T. 978-273-6000

9/26  
뉴튼 네일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자격증 소지하신 분/취득하실 분 환영 T. 617-678-4780

8/29  
체스넛힐 레드망고 주방 보조 하실 분 구합니다. T. 617-795-0376

8/29  
렉싱턴 입주 베이비시터 / 가사도우미 구합니다. T. 617-340-9624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8/22  
Restaurant for Sale  
Arlington Center on Massachusetts Ave. T. 617-480-7090

8/29  
우번 방렌트, 유틸리티 포함 \$500 T. 781-910-4433

4/25  
**N [매 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케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4/25  
**N [매 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 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 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6/13  
**N [매 매]**  
뷰티서플라이 매매. 한국에서 10년 넘게 영업 하였고 리타이어 하기 위하여 급매 하고자 합니다. 면적 3,000sf, 연매상 \$500,000, 매매가 \$250,000 위치:테네시 멤피스 Neighbor Food 월마트,뷰티살롱및 이발소가 많은곳에 위치함. T. 901-267-2991

6/13  
**N [구인]**  
도라빌 지역 보험회사 여직원 구함 자격요건 : 영어, 한국어 가능하신 분. 시간 : 9am-5pm Mon-Fri T. 770-458-9001

6/13  
**N [구인]**  
우리들척추신경원에서 여직원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resume를 보내주세요. Accidentrecoverycenter5460@gmail.com

6/13  
**N [구인]**  
둘루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함께 일하실 여직원을 찾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은 이력서를 eun@eparklaw.com 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rates effective as of 5/1/14.

## 한석규 "연기, 하면 할수록 어떻게 연기 안 할까 고민"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기자 = 한석규가 배우라는 직업의 어려움을 밝혔다.

한석규는 18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사옥에서 열린 SBS 새 월화드라마 '비밀의 문'(부제 '의궤살인사건', 극본 윤선주/연출 김형식) 제작발표회에서 영조 연기의 어려운 점에 대해 "연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연기를 안 할까가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연기라는 일이 곧 시간을 사

는 직업이구나 싶다. 배우가 하는 일은 가짜의 시간을 사는 일이다. 허구의 시간을 사는 일이 배우다"며 "그 점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한석규는 "그러나 보는 분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 연기하는 우리들이 진짜라고 믿고 해야 보는 분들이 진짜라고 볼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진짜라고 믿는 일이 너무 어렵다"며 "가짜의 시간을 진짜처럼 사는 일이 배우가 하는 일이고, 그게 어렵다"고 배우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또 "시행착오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할 만하다. 배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검열했기 때문에 점점 더 완성도가 있어질 것 같다"며 이제서야 배우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비밀의 문'은 강력한 왕권을 지향하는 영조와 신분의 귀천이 없는 공평한 세상을 주창하는 세자 이선의 갈등 이야기에 궁중 미스터리를 입혀 재해석한 작품이다. 한석규, 이제훈, 김유정, 박은빈, 김민중, 최원영 등이 출연한다. 오는 22일 첫 방송.



## 윤상 '날 위로하려거든' 뮤비 공개 윤진서와 의외의 연기 호흡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가수 윤상의 '날 위로하려거든' 뮤직비디오가 화제다.

17일 공개된 윤상의 데뷔 첫 디지털 싱글 '날 위로하려거든' 뮤직비디오에는 윤상과 윤진서가 노랫말을 모티브로 한 연기를 펼쳤다.

뮤직비디오는 텅 빈 객석에 앉아 있는 윤진서가 스크린에 등장한 윤상이 부르는 음악을 듣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어진 2절에는 윤상과 윤진서의 위치가 바뀌었으며 고통받는 윤

진서의 모습에 함께 마음 아파하는 윤상의 감정 연기가 이어졌다.

'날 위로하려거든'은 일렉트로니카 장르로, 작사가 박창학이 은유적이면서도 함축적인 노랫말을 더해 서정적 숨결을 불어넣은 곡이다.

한편 윤종신은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윤상의 뮤직비디오를 링크하며 "아 짜증나. 노래 왜 이렇게 좋아. 위로는 무슨... 이렇게 잘하면서"라고 질투해 웃음을 자아냈다.



## '솔로 컴백' 윤도현 "목소리 변했지만 표현력 풍부해져"

(서울=뉴스1스포츠) 이한솔 기자 = 가수 윤도현이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윤도현은 16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 무브홀에서 열린 솔로 미니앨범 '노래하는 윤도현' 기자회견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고 목소리도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목소리가 허스키해졌지만 반면에 표현력이 풍부해졌다. 그런 것들이 저절로 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스스로 변화를 꿈꾼 건 아니다. 변하게 싫지도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음악을 계속하며 10년, 20년 후에도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변해갈 것 같다"고 전했다.

윤도현의 솔로 미니앨범 '노래하는 윤도현'은 그 어떤 앨범보다 그를 온전히 담아낸 앨범이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우리 사랑했던 시간만큼'과 또 다른 타이틀곡 '빛소리'를 비롯해 총 다섯 곡이 실려 있다.

타이틀곡 '우리 사랑했던 시간만큼'은 윤도현의 목소리 중 가장 매력적인 톤을 최대한 살린 곡으로 어쿠스틱 기타의 아르페지오가 선명하기에 슬픈 곡의 분위기를 한층 더해준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별 후의 공허함이 잘 표현된 가사와 옥상달빛 박세진의 멜로디언 연주가 인상적이다.



## '비긴 어게인' 200만 돌파 올해 개봉한 다양성 영화 중 최초

(서울=뉴스1) 온라인팀 기자 = 영화 '비긴 어게인'이 관객 20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비긴 어게인'은 17일 5만 698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누적 관객수 202만 259명을 기록했다.

'비긴 어게인'은 지난 5일 올해 개봉한 다양성 영화 중 최초로 100만을 돌파한 데 이어 200만 관객까지 기록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는 영화를 본 관객들의 입소문과 영화 OST의 인기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한국에서 개봉한 '비긴 어게인'은 명성을 잃은 음반프로듀서와 스타 남자친구를 잃은 싱어송라이터가 뉴욕에서 만나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다뤘다. 키라 나이틀리, 마크 러팔로, 마룬5의 애덤 리바인 등이 출연했다.



# 한주간



# 시청률 순위

2014년 9월 8일 ~ 9월 14일



**1위**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30.9%



**2위** KBS2 주말연속극 가족끼리 왜 이래 26.0%



**3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20.5%

- 4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둥지) 17.9%
- 5 KBS2 KBS스포츠축구(국가대표평가전한국:우루과이) 17.0%
- 6 MBC 주말특별기획(마마) 16.2%
- 7 KBS2 해피선데이 15.1%
- 8 KBS1 KBS9시뉴스 14.9%
- 9 KBS2 개그콘서트 14.3%
- 10 MBC 일일특별기획(엄마의정원) 14.1%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4.99에 볼 수 있는 앤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 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 01 신촌을 못가 **포스트맨**
- 02 독기 **아이언**
- 03 예뻐졌다 **박보람**
- 04 연결고리#힙합 **Bobby**
- 05 I Swear **씨스타**
- 06 공허해 **WINNER**
- 07 가드올리고 Bounce **Bobby**
- 08 한여름밤의 꿀 **San E, 레이나**
- 09 Touch My Body **씨스타**
- 10 I'm Fine Thank You **레이디스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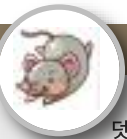
## 숫자 퍼즐 (Sudoku)

	4		7	6		8	2
	8					1	7
			5				
		3			4	8	9
			8	1	5		
8		1	2			4	
					3		
	6	8					2
9	5		1	8			4

9월 21일 - 9월 27일

#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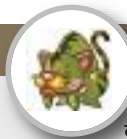
### 쥐띠 | 의욕이 샘솟기 시작하는

● 운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큰 산과 같은 고민은 어느덧 사라집니다. 일에 대한 의욕이 샘솟기 시작하는 주입니다. ● 금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이익이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상대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바로 읽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2, 27일 길일. 21, 2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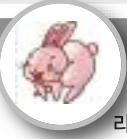
### 소띠 | 음지에 햇빛이 찾아드는

● 운수: 음지에 햇빛이 찾아드는 격이니 일의 능률이 오르는 때입니다. 다만 한 가지씩 착실히 이루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금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어집니다. 금전적으로 유리한 운세입니다. ● 애정: 새로운 소개나 만남을 통해서 생활에 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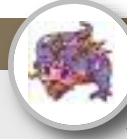
### 범띠 | 강하게 밀고 나가야

● 운수: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하고 있는 일들은 그대로 지속해 나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 금전: 강하게 밀고 나가야 자신의 뜻대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나가있는 돈은 빨리 거둬들이도록 하세요. ● 애정: 본시 남의 허물은 태산같이 보이고 자신의 허물은 바늘 끝처럼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4, 25일 길일. 22, 23일 주의.



### 토끼띠 | 몸과 마음이 분주하게 되니

● 운수: 실속이 없는 일에 몸과 마음이 분주하게 됩니다. 빨리 현실로 돌아와서 제대로 행동하도록 하세요. ● 금전: 금전상의 대립이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애정: 자기가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꼭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갚고 보면 오히려 허무한 남게 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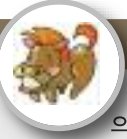
### 용띠 | 새로운 일에 도전할

● 운수: 의욕이 왕성한 주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 금전: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재산 증식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더 좋은 기회가 옵니다. ● 애정: 교제를 하면서 서로 맞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찾게 됩니다. 화합의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 뱀띠 | 계속 상승세를 타고

● 운수: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타고 나간다면 기대 이상의 일까지 손을 뻗칠 수도 있겠습니다. ● 금전: 물품 구입이나 여행 등으로 금전 지출이 많아질 것입니다. 비교적 수입과 지출의 밸런스는 좋은 편입니다. ● 애정: 새로운 만남이나 재혼을 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도록 하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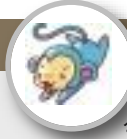
### 말띠 | 인내심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 운수: 한 단계씩 올라 정상에 도착하듯이 침착하게 인내심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때입니다. ● 금전: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쉽게 금전 거래를 하게 되면 손재수가 있습니다. 말을 가려서 듣거나 아예 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기가 막히지만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 마음 놓고 반박도 못하는군요. 속이 상할 수밖에 없겠지만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1, 24일 길일. 26, 27일 주의.



### 양띠 | 여유 있게 대처해 나가는

● 운수: 어려움에 부딪히기 쉬운 주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유 있게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금전: 거래처와의 관계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실리적인 면만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애정: 만남의 기회가 많아지지만 흔들리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의 사랑에 충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1, 25일 길일. 24, 2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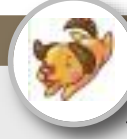
### 원숭이띠 | 생명수 같은 기운을 받아서

● 운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생명수 같은 기운을 받아서 회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 금전: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원하는 일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고 이익도 보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다른 방법에는 용기가 있어도 이성 앞에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군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3, 26일 길일. 2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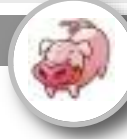
### 닭띠 | 인맥을 쌓기 위한 투자를

● 운수: 주위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 답답해집니다. 갑자기 예정을 변경해야 할 일이 생겨 일처리가 늦어지게 됩니다. ● 금전: 인맥을 쌓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후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이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 가는 멋진 연애를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청춘을 넘길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2,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 개띠 | 애정이 샘솟고

● 운수: 계속해오던 일이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나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생각지도 못했던 주식 투자가 의외의 수입을 가져다줍니다. 큰 성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 애정: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고 애정이 샘솟고 있습니다. 교제중인 사람은 주위의 협조를 얻어서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2, 24일 길일. 21, 27일 주의.



### 돼지띠 |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 운수: 웬지 모르게 초조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갈등에 휩싸이게 되기도 하겠습니다. ● 금전: 이사하기에는 적합한 시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손실이 없겠습니다. ● 애정: 몸은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가변 갈수록 마음을 잡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6일 길일. 22, 25일 주의.

## 고준희 가방 디자이너 변신 '완판 될까?'

(서울=뉴스1스포츠)권수빈 기자 = 배우 고준희가 가방 디자이너로 나섰다. 고준희는 최근 디자이너 잡화 브랜드 쿠론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레이첼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는 지난 시즌부터 쿠론의 뮤즈로 활약하고 있는 고준희의 스타일을 담은 것으로, 고준희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해 외적인 아름다움과 실용성 모두를 살렸다. 특히 독특한 컬러감과 흐르는 듯 자연스러운 무늬가 돋보이는 소가죽의 부드러운 감촉이 돋보인다.

브랜드 관계자는 "고준희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표적 스타일 아이콘이다. 고준희만의 감성이 디자인에 담긴 만큼 이번 콜라보레이션이 자사 브랜드의 다양한 면을 고객들에게 좀 더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고준희는 임상수 감독의 신작 '나의 절친 악당들'에 캐스팅됐으며 오는 10월 23일 영화 '레드카펫' 개봉을 앞두고 있다.



## 이민정 귀국 후 묵묵히 개인일정 소화 "광고 촬영 마쳤다"

(서울=뉴스1스포츠)이경남 기자 =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이민정이 묵묵히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민정의 소속사 엠에스엠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8일 "이민정씨가 16일 귀국해 17일 광고 촬영 일정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민정이 원래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예전부터 약속을 해 둔 상태여서 일정에 따라 파리에 갔다가 돌아왔다. 광고 촬영도 예전부터 예정돼 있던 스케줄이다"고 설명했다.

이민정은 지난 3일 남편 이병헌의 동영상 협박 사건이 터지자 당초 예상된 스케줄을 앞당겨 다음날인 4일 파리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2주간 지인의 결혼식 참석 및 개인 시간을 보내고 16일 귀국했다.

이민정 귀국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민정 귀국, 맘고생이 얼마나 심할까", "이민정 귀국, 이병헌이 진짜 잘해줘야 한다", "이민정 귀국, 잘 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태티서 '할라', 아시아 9개 지역 아이튠스 앨범차트 1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소녀시대의 유닛(소그룹)인 태티서(태연, 티파니, 서현)의 새 미니앨범 '할라'(Holler)가 아시아 9개 지역 아이튠스의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1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개된 '할라'는 홍콩, 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9개국의 아이튠스 종합 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

또 아이튠스의 장르별 카테고리인 팝 앨범차트 순위에서도 핀란드 2위, 일본 2위, 스웨덴 3위, 미국 9위, 캐나다 9위, 호주 11위 등 해외 각국 차트 상위권에 올라 글로벌한 인기를 입증했다.

미국 빌보드도 16일(현지시간) K팝 칼럼인 'K-타운'을 통해 '소녀시대-태티서'의 새 앨범 할라가 그들의 마음, 몸, 영혼을 상징하는 이유

'탄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이 앨범은 태티서가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타이틀곡 '할라'에 대해서도 "보컬로 즐거움을 주는 음악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내지 못할 고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이 곡은 국내에서도 지난 16일 8개 음악사이트의 실시간차트 1위를 석권했다.

태티서는 오는 18일 앨범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방송 활동에 나서며 같은 날 오프라인에 앨범이 출시된다.



## 정지원, 조우종과 짬뽕 먹는 사이?



(서울=뉴스1스포츠)명희숙 인턴 기자 = 정지원 아나운서가 동료 조우종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정지원은 지난 17일 밤 11시10분 방송된 KBS2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에 출연해 "조우종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내가 사심이 있는 줄 오해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조우종은 "정지원과 함께 짬뽕을 먹으러 갔는데 살을 발라내더니 먹는 내내 나를 챙겨줬다"며 "건너편 테이블에 앉았던 입사 동기가 아는 척을 못 하더라. 완전 그린라이트다. 계속 오해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i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 <김씨의 뿌리(13)>

## 한무제 흉노를 물리치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감숙성 무위시에 있는 김일제 석상

한고조(漢高祖) 유방이 평성에서 흉노 목특에게 대패하고 (BC 200) 흉노와 굴욕적인 화친을 맺었다는 사실을 전번 칼럼에서 밝힌 바 있다. 한고조 유방으로 말하면 막강한 초패왕 항우를 해하 대전에서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한 영웅 중의 영웅이었다.

이런 역전의 영웅이 흉노 목특에게 단 한번의 싸움에서 대패하고 말았다.

그는 장군 진희(陳稀)를 북방 변경으로 보내 군사를 감독하게 했는데 진희는 흉노와 결탁하고 스스로 대왕(代王)이라고 칭하면서 배신을 했고, 연왕 노관은 흉노에게 항복해 버렸다.

흉노는 화친 조약으로 챙겨갈 것은 모두 챙겨가면서도 수시로 국경을 넘나들며 한나라를 괴롭혔지만 한나라는 막강한 흉노를 대적할 힘이 없어 온건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고조 유방은 속병을 얻어 괴로워하다 결국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였다(BC 195). 유방의 미망인 여태후(呂太后)는 한고조의 뒤를 이어 등극한 혜제와 전소제(前小帝), 후소제(後小帝)를 제쳐두고 섭정이 되어 황제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되었다.

목특은 여태후에게 국서를 보내어 “그대는 이제 혼자된 몸이고 나 역시 쓸쓸하니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서로의 없는 것을 채워붙이 어떨겠소” 하며 무례한 요청을 하였다. 그 내용인즉 나도 아내가 없고 당신 역시 남편을 잃었으니 서로 부부의 연을 맺자는 청혼 편지였다.

한나라 측에서 보면 대단히 무례한 국서였지만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여태후는 목특을 달래는 답서를 보냈다. “저는 이제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머리카락과 이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라는 글로 개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냈다.

그 이후로 혜제, 문제(BC 180~BC157) 때도 공주를 선우에게 시집 보냈다.

흉노는 수시로 한나라를 침범해왔지만 한나라는 흉노와의 싸움을 피하면서 군비와 국력을 키우는 데에 주력할 뿐이었다. 한나라가 흉노에게 패전한 제일 큰 원인은 기병 위주의 흉노에게 한나라는 보병 위주로 싸웠기 때문이었다. 한나라 역대 왕들은 말의 숫자를 늘리려고 말을 많이 키우는 백성들에게 병역을 면제해주었고 군대 편제를 흉노처럼 기병 위주로 바꿨다.

흉노 사람 훈련관을 초빙하여 군대 훈련을 시켰다. 효문제 이후로는 농업을 장려하려고 세율을 1/15에서 1/30으로 대폭 삭감한 결과로 한나라의 국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흉노 목특이 사망한지 30년 후에 한나라에는 목특에 비견

할만한 위대한 황제 한무제(漢武帝)가 즉위하였다. 중국 사람들은 진시황, 한무제와 청나라 때의 강희제를 위대한 제왕으로 꼽고 있다. 한무제가 뽑힌 이유는 흉노를 섬기던 한나라가 그의 치세 때 흉노를 제압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땅에 한사군을 설치해서 우리에게는 곱고러운 인물이지만 중국을 위해서는 흉노뿐 아니라 월남, 티베트를 정복하고 장건을 시켜 실크로드를 개척한 사람이었다.

기원전 141년 16세의 어린 나이로 황제가 되서 BC8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54년에 걸친 그의 치세는 흉노 타도가 제일 큰 과제였다. 이 전쟁과 준비 과정에서 한나라 백성들은 반세기라는 긴 세월을 엄청난 고난과 불행 겪어내야만 했다. 한무제가 흉노를 격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를 믿고 따라준 충직한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즉위할 때(BC 141) 한나라에는 이미 30만필의 전투용 말이 확보되어 있었고 국가 재정이 넉넉하여 전쟁 준비가 갖춰지고 있었다.

그의 재위 중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등용되었는데 그는 종족이나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인재

를 이 전쟁으로 광거병은 1만 병사 중 7천명이 죽고 3천명만 살아남았지만 대단한 전과를 올린 것이다. BC121년에 광거병은 또 다시 서쪽 흉노를 공격하여 사상자 3만 2천명을 내게 하였다.

광거병의 공격으로 흉노의 수뇌부가 동요하게 되었다. 흉노의 대선우가 좌현왕 혼야왕과 우현왕 휴저왕을 패전의 책임을 물어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양인이 한나라에 투항하기도 했는데 휴저왕이 주저하자 혼야왕이 휴저왕을 죽이고 한나라에 투항해버렸다.

휴저왕의 부인 알지(關氏)와 아들 김일제(金日磾), 김윤(金倫)은 한나라의 포로가 되었다.

이곳 기련산(祁連山) 일대는 흉노의 대단위 목장이 있던 곳이고 그 지맥인 언지산(焉支山)은 서역과 연결되는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요충지였다. 언지산에서는 여인들이 얼굴에 바르는 연지의 주원료인 홍람이 많이 재배되는 곳이라서 언지산으로 고쳐 부르기도 했다.

한무제는 이곳에 무위(武威) 주천(酒泉) 두군을 세우고 관동 일대의 빈민들과 범죄자들을 이주시키고 후일에 흉노 사람 수만 명을 산동 반도로 이주시켰다.

BC119년에 한무제는 다시 위청과 광거병에게 각각 5만의 군사를 주어 흉노의 주력을 공격하여 그들을 더 북쪽으로 쫓아내었다. 이로써 한나라는 흉노의 직접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무려 40여년에 걸친 전쟁에 군비를 조달하고 병사를 충원하다 보니 국고가 비고 국민의 숫자가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전쟁의 주역 표기장군 광거병은 오염된 물을 마시고 생명을 잃었고 연전 연승했던 위청은 이치사 선우를 잡지 못한 책임을 물어 대장군 자리를 한무제의 큰 처남 이광리에게 넘겨주었다.

후일에 흉노는 호한야 선우의 동흥노와 질지 선우의 서흥노로 갈려지는데 서쪽으로 쫓겨난 질지 선우는 강거국에 정착했다가 후일 AD375년에 유럽을 휩쓴 훈족의 모체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C89년 한무제는 오랜 전쟁으로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희생을 강요한 것을 참회하는 윤대(輪臺)의 조서를 발표하였다.

당시의 양식 있는 지식인 사마천은 평준서(平準書)에서 한무제의 영토확장 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아 갑옷을 풀지 못하니 천하는 그 노역에 힘겨워한다.”



흉노, 한 대월지 지도

등용하였다. 예를 들면 흉노를 무찌르는데 수훈을 세운 위청(魏靑)과 광거병(霍去病) 장군은 천민 출신이었다.

황제가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책무 천인삼책(天人三策)을 제시한 유학의 대가 동중서(董仲舒), 13년간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겪으며 천산남북, 중앙 아시아, 각지에 그의 족적을 남기고 실크로드의 실체를 밝힌 장건, 문장의 대가 사마상여, 재능 있는 행정가 공선홍, 소신 있는 충언으로 유명한 사기(史記)의 저자 사마천, 삼천갑자 동방삭 등 중국 역사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BC133년 한무제는 드디어 흉노에 대한 대규모 반격을 시작했다.

두 번의 공격이 성과 없이 끝나자 한나라 군대는 흉노의 주력을 피해 광거병이 1만명의 병력으로 흉노의 방어가 미약한 서쪽을 공격하였다. 광거병은 후방 보급 부대도 없이 병사들 각자가 수 일분의 식량만을 지참하고 공격하였다. 흉노군과 싸워서 그들의 식량을 빼앗지 못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한나라 군은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하였다.

광거병은 흉노 본거지 언지산(焉支山)에 도달한 후 흉노 절관왕과 노후왕을 죽이고 좌현왕 혼야왕(渾邪王)을 포로로 잡고 우현왕 휴저왕을 물리쳤다.

또한 흉노인들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금인을 빼앗았다.



연지의 주 원료인 홍람꽃이 많이 재배되는 언지산의 모습

2014 즉문즉설 세계 100회 강연 8.26~12.18

# 버르스님 법관스님 희망세상만들기

보스톤 강연  
9.24(수) 저녁7시



9.24(수) 저녁7시  
**Harvard Univ. Science Center Hall C**  
1 Oxford St, Cambridge, MA 02138  
문의: (617)977-4227, (212)222-0636

**<선착순 무료입장>**



**전체행사일정**

[www.jungtosociety.org](http://www.jungtosociety.org)  
[facebook.com/wehopeworld](https://facebook.com/wehopeworld)

주최: 정토회 | 주관: 정토회해외지부&보스톤열린법회

신영의 **세상 스케치**

46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막말이 도를 넘으면 망말이 되고...

살면서 별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면 몹시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가 늘 마음에 믿음으로 있었을 때 더 깊고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전에 아무런 예고 없이 무차별하게 발사해버린 말의 무기는 참으로 무서운 언어 폭력이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그 상대방의 인격(人格)을 존중해야 할 의무와 책임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도 있기에 격(格)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하기에 말에 있어 격(格)이 없는 막말이 지나치면 망말이 되는 것이다.

글쟁이의 고질병이랄까.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오가며 지나치다 듣는 말 중에 귀에 베풀이라도 달린 듯 들으려 애쓰지 않았는데 빨려오듯 들려올 때가 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쯤에 계신 어른들의 대화에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다. 그것은 조용하셨던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께 자주는 아니었지만, 아주 가끔은 무례한 언성으로 계셨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결혼 후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2년 6개월을 살면서 친정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심한 가부장적인 모습에

많이 놀라기도 했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유교적 교육이 큰 몫을 했다는 생각을 해본다.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할까. 부부라는 이름으로 언제나 무조건 행하는 이는 남편이고 늘 참고 받아야 하는 이는 아내일까.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그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고 하지 않던가. 어느 상황에서 갑이 늘 갑이 되고 을이 늘 을로 남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같은 일에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수위는 높아지기에 갑은 갑으로서 을은 을로서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만큼 둘의 관계는 수평을 유지할 수 없는 주종의 관계인 수직으로밖에 남을 수 없는 까닭이다.

가끔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국말이 서툰 시절에도 남편은 아내인 내 귀에 듣기 거북한 격(格) 떨어진 말을 툭 던지곤 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흘러온 말일까 말이다. 순간, 찰나의 시간에 '짜!'한 바람이 이십 여년의 세월 속을 훑고 지나가는 것이다. 날카롭게 축 세운 화살은 남편을 관통하고서도 모자라 곧장 시아버지께로 달려

간다. 아뿔싸! 기억에 남은 나쁜 생각들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희석되어 없어지는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닌 까닭에 놀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결국, 날카로이 축 세운 화살은 나의 가슴에 박혀 멈추었으니 말이다.

가끔은 글을 쓴다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다. 내 생각과는 달리 한 바퀴 돌고 돌아 날 세운 무서운 무기가 되어 위협하며 달려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이란 것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잘라내고 깎아내고 씻어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지 않은가. 특별히 내 마음에서 의도한 나쁜 마음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적어 내려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 고 그것이 옳다고 믿는다. 굳이 남편의 흉을 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위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은 더욱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글을 이어가기 위한 가닥을 찾아가기까지 어떤 예를 들자면 제일 편안한 것이 내 가족이 아니던가.

남편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보통 때는 여느 남자들처럼 잔소리를 늘어놓거나 아내의 하는 일에 일일이 참견을 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욱'하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커녕 생각도 없이 격(格) 떨어진 말부터 특

던져버리고 만다. 이럴 때마다 울컥 올라오는 울화를 참느라 여간 힘들지 않았다. 그것은 결혼 후 시어머님께로부터 배워진 관습에 길들여진 습관처럼 그렇게 미덕이라 여긴 아 니 지혜라고 자위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혼 후 시어머님은 시아버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이렇다저렇다 의견(토)을 내놓지 않으 셴다. 그 상황에서 며느리의 의견은 버릇없는 말대답일 뿐이었다.

이렇듯 우리 부모님 세대에 계신 어른들의 가부장적인 모습은 어느 가정에서도 거의 비슷하리란 생각을 한다. 가끔 지나다 연세 드신 어른들 중 남편이 아내를 챙기시는 모습을 만나면 참으로 고맙다. 설령, 그 모습이 집 안에서보다 밖에서 조금은 지나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한 번 던져져 떨어진 말은 주워담을 수 없으며 깨어지고 만다. 말에 담긴 에너지의 파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생각 없이 던지는 막말이 도를 넘으면 망말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서로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되는 긍정적인 말이 서로를 살리는 까닭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승자독식勝者獨食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김유정 소설 '동백꽃' 이다. 점순이네 솥닭에게 모질게 당하는 총각네 솥닭이 가없다. 싸움닭을 키우는 노하우인데, 물에 탄 고추장을 먹었다고.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건 고문이었을 게다. 참새는 하지만 닭보다 더 작다. 닭보다 작은 참새도 알을 낳는다. '봄봄' 인데, 역시 김유정이다. 기억하시는가. 봄봄의 한대목이다.

“글쎄 이 자식이!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떴냐?”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열 낳지유?”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꿩배기 하나

가 작다) 「봄.봄」에서

중국에선 치맥이 한창 인기가 있는 모양이다. 치맥은 치킨과 맥주를 줄인 말이다. 치킨은 튀긴 닭고기이다. 한국드라마 '별그대'의 영향이라 했다. 한 번 먹기 위해 한 두 시간 기다리는 건 보통이라한다. 계륜鷄肋도 닭고기로 취급되어 음식으로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다. 닭갈비에 붙어 있는 살은 별로 없다. 하긴 닭발도 먹는데 먹지 못할 이유는 없다. 솥장닭은 암탉에 비해 고기가 더 질기다. 치맥장사 하는 것도 아닌데, 설명이 길었다. 솥닭 두 마리에 암닭이 두 마리라면 당연히

두 가정이다. 한 지붕에 두 가족인게다. 하지만, 닭의 세계에서는 두 가족이 될수 없단다. 오직 힘센 솥닭이 정실에 소실까지 거느린다 나. 힘없고 닭싸움에서 이길수 없는 솥닭은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독수공방인게다. 닭들의 세계에는 배려는 없고, 나눔의 송고한 정신도 없는게다. 오직 승자독식勝者獨食만 있단다. 닭들이 살아 가는 방식일 테니 내가 뭐라 할말은 없다. 하지만 치열히 살아야 하는 인간세상에는 배려나 나눔이니 하는 말도 종종 들린다. 인간을 닭과 비교해 조금은 멋적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부행사에 재능기부도 있던가. 재물이건 재능이건 사랑이건, 무엇

이건 심지어 고통까지 나누는게 옳다. 나이 들면서 편하려면, 크게 베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렇게 배웠는데, 너무 성인군자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새록새록 깨닫는 바 크다. 내 마음은 솥닭이 아닌건 확실하다.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입만 앞섰다. 참 참새는 일부일처제이던가?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현대의 성경, 전도서 11:1)

‘나’ 보다 ‘우리’가 되는  
**We are Bene Family**

가맹점주님과 하나가 되어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카페베네 본사 인테리어고문  
 나장수 디자이너

브라질 이파네마 커피 농장  
 산 페드로 씨

뉴저지 카페베네  
 데이빗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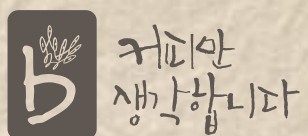
맨하탄 카페베네  
 트레이시 씨

일본 하네다 공항 카페베네  
 바리스타 켄지 야마다 씨

카페베네의 Family가 되실  
**미주 카페베네, 가맹대표님을 모십니다**

\*Plan Caffebene  
 카페베네 패밀리가 함께하다

뉴욕에 1호점을 낸 이후 계속해서 그 성장을 멈추지 않는 카페베네- 작은 커피전문점의 꿈을 넘어 세계 글로벌기업을 꿈꾸는 카페베네의 가맹대표님이 되어보세요. ‘나’보다는 ‘우리’ 를 먼저 생각하는 카페베네가 점주님들의 성공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카페베네 가맹대표님 모집**  
 미국 내에서만 현재 100여 개 이상의 매장이 오픈 준비중입니다

**1.888.963.9672**  
[www.caffebeneusa.com](http://www.caffebeneusa.com)





##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48 정조와 홍국영洪國榮(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정조시대의 풍운아 홍국영은 누구인가? 그를 기록한 정사를 비롯하여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 과 당시와 후대의 야사를 보면 홍국영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거의 그가 죽은 뒤 기록된 관계로 부정적으로 흑평되거나 비하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여기서는 그에 관한 기록들 중에서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서술해 본다. 그는 풍운아임에는 틀림이 없다. 1776년 정조 즉위와 함께 실권을 잡으면서 3, 4년의 짧은 기간에 막강한 '세도勢道' 을 부리다가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하직했지만 그가 끼친 당대의 영향은 지대하다. 그 여파로 인하여 2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그의 발자취는 역사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학술논문과 소설을 비롯한 다양한 매개체를 통하여 각색되어 가고 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서울의 장안에서 뿌리를 내린 명문 문벌 중의 하나였다. 즉 도성의 '경화사족 집단' 의 일문이었다. 그는 풍산 豊山 홍씨인데, 풍산 홍씨의 비조격인 홍이상이 그의 8대조이며, 그의 6대조 홍주원이 선조 임금의 적녀 정명공주(인목대비의 딸, 영창대

군의 누이)의 남편인 부마 영안위이다. 그리고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또한 이 홍주원의 후손이다. 고로 홍국영의 아버지 홍낙춘이 해경궁 홍씨와 10촌간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은 영조 당대에는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를 비롯하여 이익보 가문, 홍계능 가문, 조종회가 문, 김이도 가문 등 세력가들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 홍국영의 조부 홍장한은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고 백부, 숙부 모두 '출세' 를 했지만 그의 부친 홍낙춘은 백면서생으로 지냈다.75) 이런 가문과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란 홍국영의 젊은 시절, 즉 과거에 급제(25세 때인 1771년 정시 문과)하기 전의 기록은 눈치가 빠르고 민첩하였으며 시문을 잘 짓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 미남 젊은이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한중록에는 그의 평가가 상당히 인색하다. 해경궁 홍씨는 홍국영을 대단히 미워했기에 호의적인 기록이 없지만 그 속에서도 홍국영의 진면모를 볼 수 있다. 한중록에 따르면 홍국영은 말이 경망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재주도 별로 없으면서 글을 잘한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면서 여타튼 글을 능숙하게 지어서 항상 사용하는 시와 문장은 재치있고 예리하였으며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 놀기를 좋아하는 한량배였다. 그는 늘 "천하의 모

든 일이 내 손아귀에 있게 되리라" 라고 떠버렸기에 동료들로부터 과대망상으로 따돌림을 받았고 동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한중록에는 그가 하늘도 땅도 두려워 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했다. 또한 심낙수沈樂洙의 '은파산고恩波散稿' 에는 홍국영은 경망하고 방종하였으며 술과 여색을 좋아하고 함께 모여 놀거나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고 전한다. 즉 시중의 무리배들과 어울려 술과 여색으로 창을 부르고 장기를 두며 놀았다고 한다. 이렇게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는 호방하게 막 놀기만 한 한량이었지만 그는 2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영조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 영조가 홍국영을 곁에두고 사관으로 부리면서 '내 손자다' 라고 까지 부를 정도로 귀여워 했다. 그리고 그는 왕위계승권자인 세손(정조의) 보좌역을 맡으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린다. 이 보직은 영조의 귀여움도 있었지만 당시 막후세력의 두 가문인 풍산 홍씨와 경주 김씨가 혼인으로 엮어진 인척관계의 가문의 덕이라고 본다.

그리고 정사 역시 그의 실각이나 사후에 수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를 묘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홍국영은 권모술수에 능하여 혼자 힘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 개혁을 주도했던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기도 했고 또한 그는 백성들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며 그

들의 애환을 바탕으로 정치를 바르게 하려했던 현실적인 개혁가로도 묘사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간 개인적으로 품고 있던 불만을 정조의 즉위와 함께 실권을 잡으면서 '세도' 를 부린 한갓 세도가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평가하고 있다.

영조 말엽의 정국은 외척들이 정권의 주도권을 서로 잡기 위해 대단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홍인한(76) 과 정후겸(77) 의 세력과 김귀주(78) 의 세력이 서로가 정권을 주도해야 세손의 안위가 보장된다고 다투고 있었으며, 거기에 홍상간(홍계희의 손자), 민항렬(숙종의 장인인 여흥 민씨 민유중의 가문) 등 신진 세력이 홍국영을 멀리하자 세손은 홍국영을 더 좋아하였으며, 외척들이 앙양불락하는 가운데서도 김귀주를 더 좋아하였다. 이렇게 세손의 신임이 얻어가는 홍국영은 자신의 입지를 넓힐 수 있었다.

75) '한중록' 에서는 홍낙춘을 '광증이 있다' 라고 기록하였다. 그의 딸이 정조의 후궁으로 들어간 후에 처음으로 관직에 등용되었다. 판도령부사를 지냈다.

76) 홍봉한의 이복동생, 홍봉한은 정조의 장인이다.

77) 화완옹주의 양자, 화완은 영조와 선희궁 이씨의 소생이며 사도세자의 동생이다.

78)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의 오빠이다.



백린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 일본의 침략정책과 조선총독의 고려대장경 간행 (6)

### — 중일전쟁 —

지난 호에 이어서..

중국의 공산당은 소속군인 홍군(紅軍)을 팔로군(八路軍)으로 개편하고 주덕(朱德)을 총사령관으로 항일전쟁에 나선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은, 국공합작(國共合作)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항했다.

일본군은 복지사변이 상해사변으로 확대되면서 전면적인 양상이 보이자 3개사단을 더 상해로 증파하여 총공세를 취하게 했다. 일본의 파견군은 항주만으로 상륙하여 중지의 주요 도시인 태원, 무주, 소주, 가흥을 점령하고 국민정부의 수도인 남경으로 진격해 갔다. 중국을 점령하려는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벌인 것이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침략전쟁이 아닌 것 같이 보이게 하기위해서 처음에는 북지사(北支事變)라고 했다 가 후에 지나사변(支那事變)이라고

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1937년 9월 5일 일본의 침략행위를 국제연맹에 제소했다. 소련이 국제연맹 총회에서 일본을 침략국이라고 크게 비난하고 나섰다. 국제연맹은 중일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 중제 협의체인 "중일분쟁 자문위원회" 를 구성하여 일본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연맹의 중제를 완강히 거부하고 출석치 않았다. 국제연맹은 일본의 중국 침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일본은 열강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자 10월 27일 중국의 국민정부에 대하여 화북(北中國)의 상해에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과 만주국의 승인 일중 반공 협정체결 손해배상, 해운, 항공, 철도, 광업 등에 대한 일중 공동 운영을 조건으로 하는 화평을 제의했다. 그러나 그것은 화평안이러기보다 오히려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모한 조건을 중국정부가 받아드릴 리 만무했다. (유린된 일

본사 p.242참조)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중일전쟁의 목적이 매우 애매하였다고 논평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일본군부의 독주와 중국군의 도발이었다고 변명한다.

일본의 역사는 중일전쟁을 중국 국민정부의 용공정책(容共政策)과 배일(排日)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대군을 투입하여 중국을 강력하게 일격을 가하여 압박하면 국민정부는 손을 들고 나와 배일과 용공정책을 변화시켜 일본의 세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중국정부의 배일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항거이고 용공은 대일 전쟁에 있어서의 국공합작(國共合作)으로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거국적으로 대일전쟁에 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겠는가이다. 일본은 중일전쟁을 중국 국민정부의 용공정책(容共政策)과 배일(排日)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 역사학자의 변론이고 사실 북지사변은 당시의 육군

차관 우메즈미지로(梅津美次郎)등 강경파의 모략으로 화북(華北) 즉 북경과 천진을 중심으로 북중국에 친일적인 제2 만주국을 건립하려는 계획의 그 기초공작이었다는 것이다. (유린된 일본사.P.242)

일본의 상해파견군은 1938년 1월 9일 상해를 함락하고 계속 북진하여 상해의 외곽도시인 무주(撫州), 소주(蘇州), 가흥(嘉興)을 공략 수도 남경으로 진격했다.

수도 남경을 점령하면 국민정부가 항일전을 단념하고 일본의 요구 조건을 순수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고 최대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자랑하는 6억의 중국국민이 일본의 침략에 간단히 무너질 수 있겠는가 말이다. 중국은 제2차 국공합작으로 대일 공동전선을 취하여 전면적으로 왕강히 나섰다. 남경의 함락은 쉽지가 않았다. 일본은 20만 대군을 투입하여 1938년 1월 수도 남경을 점령했다.

국민정부는 산서성의 중경으로 천도했다. 일본군의 남경점령과 중국인 대학살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자.





#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텝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무릎,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617-583-2993**  
www.newyjh.com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80만원~~ 60만 / 여: ~~85만원~~ 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55만원~~ 45만 / 여: ~~65만원~~ 55만원

###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 이몽룡과 로미오의 에로스와 테스토스테론 (올바른 성교육 III, 사춘기 남아 13-18세)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힘들게 겪는 '성장통'은 '사춘기' 시기가 아닐까 싶다. 이 시기는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의 첫 단추를 채우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다. 곁은 '어른'이고 속은 '아이'인 사춘기 아이들의 양면성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어쩌나' 하는 심각한 우려를 부모가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사춘기 아이들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비유를 맞춰줘야 할지 난감해 질 때도 많다. 제인 넬슨(Jane Nelson, 2007)은 그녀의 책을 통해 말한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처음은 어머니의 산통을 통해, 두 번째는 청소년기를 겪는 산통을 통해..."

사춘기 아이들을 두 번 태어나게 하는 이 산통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 자라고 본격적인 성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되면서 성욕에 눈이 뜨이는 생리 현상에서 온다고 본다. 이 무렵이 되면 뇌하수체(Pituitary Gallant) 전엽에서 분비되는 생식선 자극 호르몬 때문에 남자는 정소(精巢)의 라이디히(Leydig) 세포를 통해 남성호르몬(Testosterone)이 급격히 분비된다. 안드로겐(Androgen) 또는 안드로젠이, 남성호르몬의 작용을 나타내는 모든 물질을 일컫는 말이다. 여자는 난소(卵巢)의 난포가 자극되어 여성호르몬(Estrogen)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의 양이 급격히 많아진다. 대부분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호르몬이라고 하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여성호르몬이라고 한다.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사춘기 남아의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는 사춘기 이전에 비해, 20-25배 가량 많아진다. 예를 들어, '9살의 남아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하루에 분비되는 양이 8 온즈(한 컵 정도) 정도라면, 15살의 청소년

년은 2 갤런(Gallon)이 분비된다' 고 한다(Louann Brizendine, CNN 2010). 매요 클리닉(Mayo, 2012)에 따르면, 남아 16-18세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가장 높아졌다가 30세 이후 서서히 줄어간다고 한다.

두 번째로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Aggression)과 연결되어 경쟁에 필요한 생리적 상태와 근육의 형성, 중저음의 남성적 목소리, 냄새, 남성스러운 생김새에 영향을 미친다. 믹키와 데스잘딘(Mikinney and Desjardins, 1973)은 사춘기에 도달한 쥐들의 공격성을 실험했다. 사춘기의 수컷 쥐들은 안드로겐 분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다. 수컷 쥐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주사했더니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되었고 다른 수컷 쥐들을 지배하게 만들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테스토스테론은 인간에게 성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그 예로, 앤더슨 박사의 조사 결과 성욕이 낮은 기혼 여성을 살펴보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았다고 한다(Sari Van Anders 2012). 이 학설을 토대로 시중에 여성의 성욕 증가를 위한 '테스토스테론 보강제'가 있다. FDI의 허가가 없으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관심이 있다면 주치의와 꼭 상의할 것을 권유한다.

다른 예로, 피셔 박사의 리서치를 들어본다. 그녀는 '남자 대학생들은 하루에 '성 생각(Sexual Thoughts)'을 18.6번을 생각한다(Terri Fisher, 2011)'고 한다. 그렇다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대학생보다 높은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성 생각'에 힘들어할까? 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와 의무 때문에 걸잡을 수 없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 사춘기의 남아의 갈등을 부모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고등학교 10-11학

년인 '이몽룡'과 '로미오'의 연애 이야기를 예로 삼아 이 시대의 사춘기 남아의 '성장통'을 말한다. 이몽룡은 나비처럼 치마폭을 펴리며 그녀를 타고 있는 춘향을 본 이후, 다른 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오로지 춘향이, 춘향이, 어여쁜 춘향이만 보였다. 사랑에 빠진 몽룡은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있어도 글자마다 춘향이요, 글귀마다 춘향이였다. 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길 없어 단숨에 달려가 그렇게 첫 날밤이 이루어졌다. 그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며칠 사이다.

로미오는 어떠했는가? 줄리엣 가문인 카펠렛 저택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무도회에 가면을 쓰고 참석하여 춤을 추는 청순하고 아름다운 14세의 줄리엣에 매료되었다. 춤을 추며 줄리엣과 입술까지 나눈 사이가 된다. 무도회가 끝난 후 로미오는 줄리엣 저택의 정원으로 몰래 들어가, 나무를 타고 발코니로 올라가 줄리엣에게 정열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약속한다. 정말 속전속결의 러브스토리가 아닐 수 없다. 그녀가 로미오와 사랑에 빠진 후, 죽음에 이르기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닷새였다.

15-16세기의 이몽룡과 로미오의 사랑의 시작은 시각적인 매력을 통한 '눈 속'에서 시작해서 '마음 속'으로 진행되었다. 몇 백년이 지난 21세기 사춘기의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춘기의 청소년은 시각적인 자극에 성 호르몬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 시대의 청소년은 결혼이 가능했고 어른 대접을 받았으며 남자의 '성욕'에 대한 허용도도 훨씬 컸다. 지금 시대의 청소년은 인터넷, 영화, 텔레비전뿐만이 아닌 여자의 야한 옷 차림을 통해 시각적인 자극을 하루에도 수 없이 접해야 한다. 현 시대의 청소년은 이몽룡과 로미오의 시대보다 '성욕'에 더 자극받지만 더 큰 인내를 하며 '성인'이 되는 것이다.

성욕'에 더 자극받지만 더 큰 인내를 하며 '성인'이 되는 것이다.

보수적인 한국 부모님은 한국 문화의 관습과 사고 방식을 통해 18세의 미만의 남자를 무조건 미성년자로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러운 사춘기 징후, 몽정과 자위에 대해 너무 큰 걱정을 하며, 이 행동을 고쳐야만 한다는 집착에 심한 터부시를 할 수도 있다. 학교 공부,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걱정 등 대학준비에 방해가 될까, '성'에 대해 지나치게 모범적인 규율을 강요할 수도 있다.

20배나 더 커진 테스토스테론이 주는 생리적인 청소년 남아의 '성욕'을 지나치게 억제할 때, 공격성과 반항이 커질 수 있다. 다음 칼럼을 통해, 사춘기를 겪는 남아에게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성'을 알려주는 방법과 잘 아는 만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성'을 어떻게 공유하며 살아가게 이끌어 주는 가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이야기 한다.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Special!

치아교정 무론상담  
(2013-11-31까지)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 \*치아교정
- \*소아치과
- \*사랑니발치
- \*치아미백
- \*임플란트수술
- \*악관절(TMJ)
- \*보철/비니어
- \*수면진정마취
- \*신경치료
- \*3DX-Ray(CT스캔)



IMPLANT • BRACES • COSMETIC  
**DENTAL**  
1st.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H**마트에서  
5분 거리



DENTAL IMPLANT CENTER  
FIRST CHOICE DENTAL GROUP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 Welcome, **TBO**

## 티보 개학기념 학생할인

# 폭탄세일!

# \$14.99

(2년 약정시)

### 학생 할인

2014년 9월5일-10월4일까지  
보스톤 코리아 티보가  
학생 여러분께 BIG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정규가격 : \$34.99

###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14.99(2년 약정시)

###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2년 약정시)

### 3. 티보 런칭기념 특별할인 연장!

10월 30일까지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2년 약정시, 3개월 후 \$34.99로 과금)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사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48)

# 액티브 펀드(Active Mutual Fund)의 문제점

액티브 뮤추얼 펀드 광고에는 “과거 수익률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turns).” 라는 문구를 첨부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이러한 문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구 그대로 과거 수익률은 과거에 있었던 수익률일 뿐이지 미래에도 반복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회사 신용등급을 설정하는 스탠더드 앤 푸어(Standard & Poor's)회사에서는 일 년에 두 번 뮤추얼 펀드 성과를 발표 (S&P Persistence Scorecard)합니다. 2014년 상반기에 발표한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3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수익률보다 높았던(top-half) 액티브 뮤추얼 펀드는 853개였습니다. 853개 펀드의 성과를 2014년까지 5년 동안 다시 지켜보았습니다. 결과는 단 37%(317)만이 평균 수익률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상위 25% 속했던 뮤추

얼 펀드는 2009년 3월을 끝으로 427개의 펀드였습니다. 427개의 펀드 성과를 2014년까지 5년을 다시 지켜본 결과 상위 25%를 다시 유지한 펀드는 단 14%라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뮤추얼 펀드는 소위 주식전문가라고 말하는 펀드 매니저들에 의해서 운용된 펀드입니다. 결론은 정보, 자금, 유능한 스태프, 등을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선별하고 투자해도 과거 높았던 수익률을 반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높았던 수익률은 어떠한 ‘특별한 투자 기술이나 방법’에 의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운’은 인위적으로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닝스타 (Morningstar, U.S. Mutual Fund Industry Stewardship Survey)에 의하면 7,700 뮤추얼 펀드에서 910(12%)개의 펀드만이 펀드 매니저 자신의 돈(\$1 million)을 자신의 펀드에 직접 투자한다고 합

니다. 펀드 매니저가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말합니다. “내가 운용하는 펀드는 특정한 섹터에 투자하므로 나의 돈을 분산투자할 수 없다.” 이러한 설명을 참작해도 배런(Barron) 보고에 의하면 50%의 펀드 매니저는 자신의 펀드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재정잡지 (Financial Analysts Journal) 7/8월호를 참조하면 1996년부터 2005년 동안 2,846 뮤추얼 펀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에 같은 매니저로 계속 운용된 펀드는 단 195(6.9%)개의 펀드였습니다. 나머지 약 2,600개의 펀드 매니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성과부족(낮은 수익률)이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인덱스 펀드(S&P 500 Index)는 50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펀드 매니저가 없습니다. 500회사의 주식

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 주식시장의 지수를 발표합니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인덱스 펀드와 경쟁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야 투자자가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게 하려면 더 많은 투자 위험을 선택할 수 뿐이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뮤추얼 펀드가 부과하는 경비입니다. 주식 펀드의 경비는 평균 약 1.3%를 부과합니다. 인덱스 펀드의 경비는 약 0.3%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펀드 매니저와 스태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최소 1% 이상

이 되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뮤추얼 펀드 매니저는 매니저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학력, 정보, 경험, 등이 서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펀드 매니저들이 경쟁하므로 한 펀드 매니저가 높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 희망, 광고와 선전, 자만심, 등의 이유로 유망한 뮤추얼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재정설계사 역시 앞으로 유망한 뮤추얼 펀드를 선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수익률에 의해서 선택한 투자는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없는 시합입니다.



## 공정원의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대학 입학 지원 요령

공정원 선생님은 보스톤 근교 브룩라인 공립학교에서 17년째 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입학 컨설턴트인 엘리자베스 위스너-그로스의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알려주지 않는 272가지 비밀/미국 명문대학 입학기술” (마고북스 출판)을 공역하셨습니다. 공정원 선생님은 하버드대학 출신들이 창립하고, 전직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종합 교육컨설팅회사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계시며, 두 자녀 모두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설명회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BostonKongConsulting@gmail.com 이나 또는 978-505-7884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것이 완벽한 우리 아이, 왜 명문 대학에 불합격되었을까? (3)

일본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온 한 유학생이 있었다. 교사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즉 교사에게 절대로 반박하지 말 것,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지적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말하지 말 것, 교사로 부터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교사의 이름을 직접 절대로 부르지 말 것, 나아가든 교사를 젊은 교사보다 더 많이 공경할 것 등이다. 하지만 이 학생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미스터 앤더슨” 또는 “미세스 존스”라고 선생님의 이름을 직접 불러야 했다.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거침없이 선생님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으며, 선생님 혼자 교단에서 가르치는 내용보다는 학생들의 그룹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문제 풀기를 할 때도 선생님은 답을 그냥 주지 않고 학생들이 답을 스스로 찾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미국 학교에서 선호하는 교수법은 collaboration이다. 교사 중심에서 떠나서 학생끼리 그룹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추세이다. 최종 목적은 학생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utonomy이다. 교실에서 문화 상호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많다. 미국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질문과 답변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절대 복종해야 할 교사로 부터 강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학생들에게 자칫 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일부 유학생들이나 한국 문화권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성적은 좋으나 수업 참여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오해를 받거나, 담당 교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필자는 보았다. 무기력한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Geert Hofstede(1986)가 정리해 놓은 교육 환경에서 두가지 상반된 문화 관점 차이를 살펴보자:

### 집단주의적인 사회(Collective Societies)

- 1.“전통”은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관련지어진다.
- 2.젊은이들은 배우고, 어른들은 학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3.수업 시간에는 학생은 교사에게 지목을 받았을 때만 말을 한다.

- 4.교사도 학생도 체면을 중시하고 손상하는 일은 피한다.
- 5.학습 환경에서 “formal harmony”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 6.교육은 사회에서 특권으로 간주되고, 상위집단으로 귀속하는 방법이 다.
- 7.학위 증서는 중요한 것으로 벽에 걸어 진열한다.
- 8.학위증서 등을 취득하는 것이 실력을 습득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 9.교사들이 영향력있는 특정 학생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

### 개인적인 사회(Individual Societies)

- 1.전통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긍정적으로 관련짓는다.
- 2.나이가 너무 많다고 못 배울 것 없다. 평생 교육 당연히 여겨진다.
- 3.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려 한다.

- 4.교사나 학생사이에 체면 의식이 거의 없고 상관하지 않는다.
- 5.학습 환경에서 도전(confrontation)은 긍정적으로 받아드리며, 의견 충돌(conflicts)은 공개되어진다.
- 6.교육은 능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제적 가치와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 7.학위 증서는 상징적 가치가 거의 없다.
- 8.능력 습득이 학위 취득보다 중요하다.
- 9.교사들은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공명 정대해야 한다.

Geert Hofstede는 50여개 국가의 문화적인 규범을 연구하였다. 물론 이 견해는 서구 문명에서 평생을 지낸 한 교육 학자의 연구서에 불과하지만, 현재 글로벌화가 가속화로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또는 앞으로 겪어야 할 문제를 제시해준다. 즉 상반된 문화를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학급 토론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자

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선생님께서 부터 소극적이라는 좋지 않은 인상을 받기가 쉽다. 한국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선생님과의 Eye contact를 하지 않아서 “산만하다”거나 “학습 동기가 없다”라는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겠다.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괜히 쳐다보는 것은 건방지거나 공손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학교에서 가르친 경험으로 필자는 어떤 학생들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학생이 “학습 장애자”라고 까지 오해를 받는 경우를 보았다. 아직 미국인들은 외국 문화나 관습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프랑스인들은 너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즉흥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20년간 한국의 교육 실정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음은 분명하다. 이제 영어는 누구나 배워야 하는 언어가 되어버렸고, 중국어까지 배워야 하는 현실이다. 문화적 환경과 차이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키워주어야 한다.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mailto:Happydolsang@gmail.com)

#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단기연수인 비자 (H-3)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 비자 (O-1, P-1)	
취업이민 (NW, EB-1, EB-2, EB-3)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wyer.com](http://www.suhlwyer.com)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1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대학을 생각하면 하버드 대학을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다. 하버드라는 이름이 웬지 미래를 보장해줄 것 같고, 그곳에서 공부하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친구들과 세계적인 석학들 밑에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하버드 학생증만 있다면 웬지 모든 곳에서 인정해주고 대접해줄 것 같아 하버드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만큼 하버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최고 대학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최고 대학에 입학한 많은 하버드 신입생들은 며칠간은 꿈속에서 생활을 하고, 한두 달 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한 학기가 끝나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평범한 학생인지를 깨닫게 하는 곳이 하버드 대학이란 걸 경험하게 된다.

왜 이런 경험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일까? 이것이 진정 하버드 입학 담당자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비밀이다. 지금부터 하버드 대학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 이야기 해보자.

설립자 존 하버드의 동상과 관련된 세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 하버드 대학교는 존 하버드가 설립한 대학이 아니다. 1636년도에 매사추세츠 베이 콜로니(Massachusetts Bay Colony)의 대법원 투표로 설립된 대학으로 처음 3년 동안은

"New College"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영국인 목사 존 하버드가 400권의 책과 자신의 부동산 반을 대학에 기부하면서 1639년 3월 13일부터 하버드 대학으로 개명되어 오늘날 까지 불리우고 있다. 둘째, 대학교정에 있는 하버드 동상은 진짜 그의 얼굴이 아니다. 지금까지 정확히 존 하버드의 초상화를 보유한 사람이 없고 기록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의 동상은 학교 설립 후 약 250년이 지난 1884년에 셔먼 호어(Sherman Hoar) 하버드 학생을 모델로 해서 미국 조각가인 다니엘 체스터 프렌치(Daniel Chester French)가 만든 것이다. 하버드 재학생들의 전통 중 하나는 졸업 전까지 하버드 동상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보아 실행한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많은 관광객들은 하버드 동상의 발을 만지면 하버드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미신을 믿고 열심히 발을 만지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셋째, 기록으로 볼 때 학교 설립을 위한 대법원 투표가 1638년이 아니라 1636년이 맞다. 1638년 존 하버드가 죽기 전 자신의 재산 일정 부분을 대학에 기부했고 그 다음해 그의 이름을 딴 하버드 대학이 공식 명칭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하버드 설립을 1638년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하버드란 명칭을 사용하기 3년 전에 이미 대학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버드 대학 투어를 하면 하버드 동상앞에서 투어 가이드들이 세 가지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 이유는 동상의 발을 만지는 것과 관련된 미신 때문이다. 즉 가짜의 발을 만지며 입학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버드가 최고가 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입학은 어렵지만 뽑은 학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학교가 지속적으로 돕고 해결해 준다는 점이다. 학생이 재정적으로 힘들면 학교가 부모님 재정서류를 검토하여 충분한 재정보조를 해주고, 학생들이 특정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자치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필요하다면 기본 절차만 거치면 충분한 기금을 제공해주는 곳이 하버드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장,단기 방학기간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통하여 지역 및 지구촌 곳곳 공동체에 하버드가 직,간접의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버드 신입생들 전원이 적어도 대학 1학년(Freshman) 동안 하버드 야드(Harvard Yard)내 기숙사에서 거주한다. 모든 학생들이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1년 동안 서로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배우고 깨닫게 하는 과정을 거쳐 보다 성숙한 하버드 학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런 이유로 한 학기 마치고 휴학을 하거나 학교 밖에서 거주하

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하버드에서의 1년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하버드 학생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계기이자, 많은 우수한 다른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한 좌절 역시 서로가 맞보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학교가 전통으로 지속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동일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재학중인 학생에 의하면 "기숙사마다 특징과 전통이 다르다. 자신의 기숙사는 방은 네개인데 학생은 다섯명으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숙사 입실하는 날 오는 순서로 방을 정하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고 모든 학생들이 거실에 짐을 놓고 룸메이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각자의 방을 정한다. 이 점은 누군가는 두명이 방을 공유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만 서로가 갈등없이 이 문제를 해결 한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해결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버드는 재정적으로 충분히 신입생들 기숙사를 충족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서로의 이기심을 앞세우기 보다 하버드 대학 일원임을 가르친다. 물론 어떤 기숙사는 모두가 독방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이거나, 세탁실이 없어 다른 기숙사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기숙사도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게하는 곳이 하버드이다.

##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매년 대학 지원 컨설팅을 해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학생들이 있다. 첫째는 학생이 학교와 사랑에 빠졌을 때이다. 학생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고, 그만큼 노력을 들여서 지원할 때 그 열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확률이 너무 낮음에도 스스로 정한 'dream school'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다. 이런 학생들은, 주위 카운셀러나 필자 같은 컨설턴트의 압박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몇몇 다른 학교에 지원서를 더 넣기는 한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완벽한 학교 말고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물론, 그 학교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큰 실망감은 고스란히 학생의 몫이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는 학교의 명성만을 쫓는 학생들이 있다.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합격률이 10%도 되지 않는 학교들뿐만 지

원 리스트를 채우고 '하나쯤은 붙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런 학교들은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 SAT 만점자, 내신 점수가 완벽한 학생들조차 합격할 수 없는 데 말이다. 물론 스스로도 학업 성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우수한 학생이라는 칭찬을 꾸준히 들어왔으니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다. (반대로 부모님의 완강한 고집을 이기지 못해,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Top school에만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다.) 역시, 불합격 통지서가 하나 둘씩 쌓여갈 때쯤에나 실수를 깨닫거나, 더 안타깝게는 현실을 부정하게 된다.

대학 지원의 첫 번째 발걸음은 언제나 자신이 지원할 학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목표가 있어야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어느 학교에 가고 싶은지 결정을 해야 해당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험이나 에세이 등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험이 많고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카운셀러 혹은 컨설턴트라면 학생에게 어느 학교가 좋은지 절대 먼저 묻지 않는다. 필자도 그렇지만,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전공, 대학권을 졸업한 후의 계획,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학생의 내신 성적과 시험 점수를 포함한 이력,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장단점들을 살펴본다. 앞으로 4년 혹은 그 이상 청춘을 보낼 학교를 고르는데 학생이 주축이 되

## 현실적인 대학 리스트 (1)

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끝났다면, 자료에 기반해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 대학부터 골라보도록 한다. 지원 학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 밑에서부터 튼튼한 토대를 지어 올려야지, 지붕이 되는 '어려운' 학교들부터 눈에 차기 시작하면 리스트 아래 쪽의 학교를 고를 때 객관적이 되기 어렵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표에서 A를 놓쳐본 적이 없는 데다 SAT 점수도 2300점으로 대단한 학생이었다고 하자. 이 학생은 학부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그 후에 의학 대학원에 진학해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선생님들은 물론 친구들과 다른 학부모조차 이 학생을 칭찬하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최고 명문 대학교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혹시 모르니까 UC Berkeley나 Tufts 정도의 학교는 예비로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어리석기 그지 없다. 만약, 이 학생이 성적표에 보여지는 수치만큼 현명하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진 않을 것이다.

정말 대학 진학에 진지한 학생이라면 확실히 합격할 확률이 높은 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입학 가능성이 보이는 학교들을 고려해보기 전에는 하버드나 예일 홈페이지조차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할 것이다. 학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으니, 필자라면

Stony Brook 혹은 Purdue 정도부터 리스트를 채워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 두 학교 모두 순위에 비해 뛰어난 생물학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있고, 그 후에 대학원 진학을 생각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 후엔 스스로도 만족할만하면서 합격할 확률도 있는 학교를 고려하게 된다. Cornell, Brown, Northwestern 같은 학교들은 학생의 내신이나 SAT 점수를 봤을 때 합격할 확률이 평균 이상인데다가, 역시 수준 높은 생물학 전공 커리큘럼으로 정평이 나있다. (합격할 확률이 평균 이상이라고 해도 학교 전체의 입학률 평균인 10~15% 보다 높다는 이야기이지,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보통 Safety school이라고 부르는 안정권 학교를 2-3개 학교, 그리고 학생의 객관적인 수치와 알맞은 수준의 match school 5-6 학교를 먼저 고르고 나면 마음 편히 운에 맡겨야 하는 reach school들을 고를 수 있다. 참고로, 위에 '백업'으로 언급했던 UC Berkeley의 올해 합격률은 19.7%로 꾸준히 떨어지는 중이고, 유학생의 경우 9.9%로 결코 어느 학생에게도 '안전권'은 아니다. (다음 칼럼에 계속)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C)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sup>TM</sup>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 Lee Associates

# 이경해 부동산

##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음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100,000

보스톤 남쪽 아이스크림, 연매상 \$400,000 프랜차이즈

보스톤 고급 몰 커스텀주얼리 연매상 \$180,000 좋은 매매 가격

동양식당 히바치/스시 우스터 클락유니버시티, 저녁 한끼 Full 리커 면허증  
연매상 \$250,000 매매가격 \$129,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 급매매, 연매상 \$120,000 매매가격 \$6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14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10,000 매매가격 \$60,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5,000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퓍아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메인주 포틀랜드지역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140,000 Wash & Fold 많음 소유자 은퇴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 SAT I,II 주말 Intensive Class

### SAT I Class

1. 대상: 시험을 앞둔 10,11,12학년

### 2. 특징:

- 실전문제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시험대비 및 최종점검
- 종일 프로그램(9:00-5:00)
- 4주 단위로 상시 등록가능
- 실력있는 강사(영문학 박사로 본원에서 4년 강의중)

### 3. 수업일정

9:00- 9:30 단어테스트  
9:30-11:30 class(reading/writing)  
11:30-12:30 점심식사  
12:30- 5:00 Full set 실전문제풀이

### SAT II Math II C Class

- 다년간 경험의 공학박사 강사
-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2014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 1. 프로그램 일정: 11.22(토)~30(일)

(11.27일 추수감사절 당일은 휴강)

### 2. 프로그램 내용

- SAT I/SSAT/TOEFL Class(3명이상)
- SAT 2 Subject Test Prep (Math/Science/History/Language)
- All subjects for private tutoring
- National Contest Prep(AMC 10&12)

###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숙식 및 교통편 알선

\* 자세한 프로그램 정보: www.bostonedu.org

## 아카데믹 프로그램

### 1. SAT 1,2 /AP/SSAT/TOEFL 및 전 학과목 개인수업 가능

- 학생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강의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Skype수업 가능

### 2. Reading/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독서후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향상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